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아가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오 보낸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15절

콜롬비아는 어떻게 남미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나?

로드리고는 콜롬비아와 파나마의 국경 근처의 정글 지역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지역 중 하나인 초코주에 아내와 함께 사는 기독교인 이고 어부이다.

이 마을은 외딴곳이라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고 경찰과 콜롬비아 당국의 보호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주민들은 주로 모터보트를 타고 거대한 아트라토 강, 바우도 강, 산후안 강을 건너 가며, 로드리고는 기쁨을 판매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그의 이야기를 처음 보도한 오픈도어가 전했다.

그는 이곳에서 사업을 잘 이어가고 있지만, 로드리고와 그의 가족은 고립되어 있다. 로드리고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다수 원주민 공동체는 신앙을 이유로 이들을 배척했다. 원주민들이 행하는 정령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드리고 가족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고립된 로드리고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게릴라 및 준군사 단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기적으로 갈취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을 폐쇄하겠다고 그를 협박한다. 이러한 범죄는 전국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더 영향을 미친다.

로드리고의 이야기는 지난 5년 동안 오픈도어가 발표한 월드와치리스트에서 콜롬비아가 남미에서 기독교인이 살기에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를 잘 보여준다. 올해 보고서에



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목록에서 콜롬비아는 전 세계 국가 중 34위를 차지했다. 오랜 민주주의 전통과 가톨릭 신자가 대다수인 이 나라가 어떻게 서반구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불안정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을까?

콜롬비아의 악명 높은 폭력의 시작은 1948년 자유주의 대통령 후보였던 호르헤 엘리에르 가이타인이 암살당하면서 '엘 보고타조'로 알려진 국가적 비극과 정치적 폭력이 급증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엘리에르 가이타인의 사망 이후 쿠바 혁명의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자유주의 게릴라 단체가 등장하여 농촌 지역에 공포를 퍼뜨렸다.

1980년대에는 마약 밀매가 증가하면서 게릴라 그룹이 마약 밀매업자들과 동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파블로 에스코바르와 같은 마약왕이 몰락한 후, 이

들 단체와 그들의 반대 세력인 준군사 단체가 마약 밀매 사업을 장악했다. 1998년 크리스체너티 투데이가 보도한 바와 같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납치, 살인, 난민의 희생자가 되는 일은 이곳에서 종종 있는 일이다.

"콜롬비아는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하는 나라이다.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곳의 기독교인들은 시골 지역에서 일어나는 박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라고 스페인 오픈도어 국장 테드 블레이크는 말한다. "하지만 시골 지역에는 게릴라나 준군사조직과 같은 무장 단체가 있는데, 이들의 승인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오픈도어는 콜롬비아 농촌에서 벌어지는 두 번째 형태의 박해는 주어인 영토에서 스스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진 원주민 집단

에 의해 자행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규범은 기독교 신앙으로의 개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공동체에서 추방되거나 토지를 몰수당하거나 경제적으로 배제되는 처벌을 받는다.

원주민 공동체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예과도로 남부의 카우카 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지역의 원주민 인구는 20만 명이 넘는다. 약 1만 4천 명으로 추산되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이주하는 등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겪었다. 북음주의 목사인 로젤리오 온다 트로체스는 2012년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코카인을 씹지 않고, 콜롬비아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조직된 도로 봉쇄에 참여하지 않고, 약초로 주술을 걸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쫓아냈다"라고 설명했다. (3면으로 계속)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그리고 십자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닙니다. 17년만 해도 고급차였던 제 차가 이제는 여기저기 부식되고 힘도 팔려 고장 나면 폐차시켜야 할 수준이지요. 하지만 살살 달래가며 잘 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통풍 시트가 안 돼서 여름이면 엉뚱, 등땀으로 축축해지는 것 정도입니다. 최근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 부러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후측방 경고 시스템, 어라운드 뷰 모니터, 하이패스내장형 룸미러, 충돌 방지 시스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기능, 스탑 앤 고 기능, 스마트 하이빔, 자동 라이트, 스마트 트렁크, 차선 유지 시스템, 전동조절의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사륜구동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요. 이런 기능들이 달린 차를 구매하기에는 제가 가진 재정의 심히 연약함 때문에 언

감생심 꿈도 못 꿀 기능들입니다. 제가 고급 승용차를 사지는 못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기능들을 제 차에 붙일 수는 있습니다. 통풍 시트를 대신해 주는 쿨링 시트가 오픈 마켓에 있고, 후방 카메라나 센서가 안 붙일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일 때 인위적으로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면서 스탑 앤 고 흉내도 낼 수 있지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율주행은 오픈 마켓을 통해서 시도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의 기본은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기능과 차선 유지 기능, 그리고 충돌 방지 시스템입니다.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차가 설정된 속도로 일정하게 앞 차를 따라서 스스로 주행하는 기능입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임수영 목사



4면 신앙도서 독후감 수상작 조진석 목사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지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신학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 1. 구약주해: 레위기 1:1~9
- 2. 신약주해: 갈라디아서 2:11~21
- 3. 논문제목: 팬데믹 이후 주일학교(차세대) 활성화 방안과 전략
- 4. 설교본문(하나 택임): 구약 - 사사기 2:1~10 4 제목/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신약 - 골로새서 1:24 제목/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김요섭구약주해.pdf)
-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4년 3월3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8회 총회기간(5월 21일~24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4년 5월 20일(월)~21일(화)
장소: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4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교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교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서전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김요섭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0,21)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김요섭 목사 (Rev. Joseph Y. Kim)
주소: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전화: 213-215-8523 / 이메일 laredeemer@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고시부 서기: 김요섭 목사(Rev. Joseph Y. Kim) laredeemer@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김성국 목사
서기: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김요섭 목사

발행인 칼럼

아디아포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아디아포라(adiaphora)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무래도 좋은(indifferent)"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래도 좋은 영역"이 있었는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 "지금 세상이 복잡해져서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善)인지 악(惡)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웬만하면 대부분에 "가치중립"이라는 평가를 하고 그 중립 지대에 적당히 끼어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은 가치 중립적인 것은 없다.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와 정의(定義)를 세상에서 쓰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디아포라"의 개념과 실체는 없다. 그리스도인이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래도 좋다며" 살아갈 수는 없다.

이처럼 아디아포라의 영역이 없다고 단호히 말할 수 있음은 "성경의 총족성" 때문이다. 성경은 인생의 그 어떤 문제라도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명확히 밝혀 주는데 총족하다. (딤후 3:16-17). 예수님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눅 11:23)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중립지역은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니면 다 악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 선 또는 악이라는 가치판단을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며 악이다.

아디아포라는 "무관심한(indifferent)"이라는 뜻도 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것이니 실상은 무관심이 아니겠는가. 사람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차라리 밋다고 하지, 무관심은 감당하기에 너무 서럽고 너무 무섭다. "무관심의 절정"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작품으로서 철학자 필리프 프리와의 대답을 읽고 있는 책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 있다면 무관심이고, 이 땅에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다름 아닌 무관심이라고 "무관심의 절정"이라는 책 제목은 이 시대를 대변하기에 매우 적절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 시대뿐이겠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있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태복음 11:17) 무엇을 해도 도무지 반응이 없는 무관심에 대한 강한 질타이다. 그 뿌리 깊은 죄악과 질병이 오늘날 대부분 사람에게 도져서,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이웃에도 이 세상에도 다음 세대에도 모조리 무관심. 오직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제외한 모든 일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그야말로 도처(到處)에서 무관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관심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앞으로 누릴 유업과 영생을 가져다 준 것이다.

분명히 하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래도 좋은 것은 없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더 이상 동경(憧憬)하지 말아야 한다. 관심 갖자. 이웃에게 무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이니 "아디아포라"를 더 이상 삶의 방식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을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모른다면,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인가?



마태복음 24:36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셨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긴다. 마태복음 24:36에서 예수님은 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을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모른다면,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인가?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다

성경은 아들이 하나님(요 1:1; 골 2:9)이시요, 동시에 사람(요 1:14; 히 2:14; 빌 2:7; 롬 8:3)이라고 가르친다. 마태복음 24:36은 이러한 성경의 진리 중 어느 것보다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한 성경의 규칙은 이렇다. 보통 성경은 때때로 그리스도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때는 인성 면에서 아버지보다 낮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 10:30)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함을 확증하셨다. 그러면서 인성에 있어서는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요 14:28)이라고 가까이 인정하셨다. 이 기본 해석 규칙은 성경만큼 오래되었다. 이 성경 원리를 완전히 설명하는 글을 보려면 여기를 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두 가지이다. "아버지는 종의 형체보다 크시지만 아들은 형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의 주장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한다. 빌립서 2:6-8에서 바울은 아들이 본체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인성에서는 종의 형체를 지녔기에 하나님보다 작다고 단언한

다. 그렇다.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다. 이 기본 진리를 알면 마태복음 24:36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해석 규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36이 드러내는 것처럼 인간의 무지를 포함하여 우리 인간처럼 사셨다. 이런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24:36을 둘러싼 더 큰 성경의 맥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24:36의 전후 문맥

푸아티에의 힐러리(Hilary of Poitiers, 310-367)는 삼위일체론(On the Trinity)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아리우스파가 마태복음 24:36을 어떤 식으로 인용하는지를 설명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모르는 예수님이 본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한 구절만을 놓고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문맥에 맞게 읽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4:36과 관련하여, 힐러리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앞뒤의 내용을 확인할 때 제대로 드러난다"라고 언급한다(De Trinitate 89.2). 힐러리의 이 말은 마태복음 24:36의 문맥을 이해하려면 본문 자체를 넘어서 마태복음 전체, 심지어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힐러리는 그의 삼위일체론에서 무려 두 장(9-10장)에 걸쳐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설명한다. 근접 문맥에

서 볼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36(마 22:41-46)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 자신의 신성을 확증하셨다. 마가복음의 평행 구절(막 13:32)에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에 앞서 자신의 신성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막 12:35-37), 마가는 마가복음 11:15-19에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으로 성전에 오시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는 마가복음 서두가 암시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막 1:2). 전체로 볼 때,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분명하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다(요 21:17; 시 44:21). 아들과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신 6:4; 요 10:30). 바울이 말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모이 되어 머무르고 계시고"(골 2:9).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요 1:16; 골 2:10). 그리고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은 또한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 1:14)고, 그리고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다"(히 2:14)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즉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신 게 사실이라면, 마가복음 8:29이나 마태복음 24:36에서도 그분이 자신의 그런 존재를 멈추실 리가 없다. 마태복음 24:36을 성경의 맥락에서 읽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한 진리에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Q: 마태복음 24:36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A: 그렇다. Q: 아들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가? A: 그렇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들어있어야 한다. 중요한 건 이 점이다. 설혹 어떤 구절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굳이 다 설명할 의도가 없다고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7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역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독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신년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담임목사 청빙 광고
민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살렛 벨엘 교회에서 함께할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저희 살렛 벨엘 교회는 ARP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교단 제일 노회 (First Presbytery) 소속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살렛에 위치 하고 있고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28 년동안 우리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기에 되였기에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차기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 한국어 와 영어 모두 능통한 자,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 로써 이민법상 신분에 문제가 없는자, ARP 교단에서 인정 한 학교의 M Div. degree 이상 소유자, ARP 교단 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인준 기준에 걸격 사유 없는자, 이민교회 목회 사역 3년 경력 이상 (전도사 포함 5년 이상),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 공부 한자, 연령: 43세 - 55세 (만 나이)
제출 서류: 이력서 (사진과 가족사항 포함) - 3 page 이하, 자기소개서 (사역 경험과 목회 비전 포함) - 10 page 이하, 목사 안수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최근설교영상 (2년 이내) - YouTube Link 또는 영상 파일,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 바랍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2024년 3월 31일
관심있는 분은 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 들 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검토후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민혁 장로 email: bethelkc7121@outlook.com Cell: 704-724-2465
살렛벨엘교회 청빙위원회
7121 Delta Lake Dr, Charlotte, NC 28215 | (704) 566-7173

담임 목사 청빙 공고
새민음장로교회는 개척 설립 후 24년이 된 교회로, PCA(미국 장로회) 한인남부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제1대 담임 목사가 2024년 11월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제2대 담임 목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
1. PCA 교단 소속이거나 교단 가입에 하자가 없으신 분
2. PCA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 대학이나 일반 대학(B,A) 졸업 이후에 신학대학원(M.Div) 이상을 공부하신 분
3.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에 걸격 사유가 없으신 분(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4. 목사 안수 후 Full Time으로 미국에서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
5. 이중 언어 설교(한국어/영어)가 가능한 분
6. 목회에 걸격 사유가 없으신 분
7. 나이는 만 40세에서 55세까지에 해당되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사진 첨부, 한국어) 2부
2.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2부
3. 목사 안수 증명서 2부
4. 대학 졸업 증명서 2부, 신학교 졸업 증명서 2부
5.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1부, 신학교 교수 추천서 1부(추천자가 직접 이메일(lee1954us@yahoo.com)로 제출함)
6.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 3회분(USB로 제출)
7. 나의 신앙 고백서 2부
8. 나의 목회 철학과 이민 목회 계획서 2부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프린트하여서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으며 설교 동영상만 USB에 담아서 함께 제출하실 것
2. 모든 서류는 오직 목사 청빙에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청빙 결과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전화로 문의하는 일은 사절합니다
4. 제출 마감은 2024년 4월 15일까지이며, 제출처는 <새민음장로교회 청빙위원회 귀중, KFPC 9742 Clay Road, Houston, Texas, 77080>입니다.
5. 2024년 6월 말까지 결정이 되면, 7월부터 10월까지의 동사목사로 시무하며, 11월 10일 주일에 담임 목사 이취임식을 할 예정입니다
6. 새민음장로교회의 웹사이트는 WWW.KFPCH.ORG 입니다.
PCA 한인남부노회 새민음장로교회 청빙위원회
Korean Faith Presbyterian Church
9742 Clay Road, Houston, TX, 77080

콜롬비아는 어떻게...

(1면에서 계속)

그러나 마약 밀매 조직의 폭력과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탄압만이 콜롬비아 기독교인들이 겪는 어려운 환경의 원인은 아니다. 오픈도어의 보고에 따르면, 세속적 편협함이 증가하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낙태, 결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

2021년, 콜롬비아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세금 인상과 코로나19 백신 배포 지연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시위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자 일부 시위대는 보고타의 대형 교회인 엘 루가 데 수 프레젠타시아를 비롯한 교회를 파손했다.

'방법론의 불일치'?

콜롬비아는 1991년 헌법이 종교, 양심, 예배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처음 인정할 이래, 역사적으로 가톨릭 국가로서 이 지역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였다.

따라서 콜롬비아 당국은 오픈도어의 최근 보고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 콜롬비아 내무부 종교국 국장이자 현재 기독교 정당인 콜롬비아 저스타 리브레스의

상원의원인 로레나 리오스는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폭력은 여러 교회와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CT에 말했다. "그러나 폭력의 원인은 항상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후보자 참여 또는 지지), 사회적 리더십(부패나 집단의 위협을 고발하는 목회자), 개인적인 문제(사업 및 부채) 등 주변 상황으로 인한 것이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리오스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1년에 콜롬비아 종교사무국은 오픈도어의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 보고서를 발표하며, 오픈도어가 콜롬비아의 종교 박해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방법론의 불일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보고서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2021년 세계종교박해지수에서 콜롬비아가 41위에서 30위로 급등한 이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020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콜롬비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적었던 해였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리오스는 말하며 "[오픈도어]조차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으로 인해 2020년은 데이터 수집에 있어 일반적인 해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오픈도어의 조사 방식은 조사를 시작한 1993년 이래로 발전해 왔다. 현재는 각국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련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박해 수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국제종교자유연구소(IIRF)의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우리는 사생활, 가족 영역, 사회 영역, 국가 영역, 교회 영역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수준을 측정한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또는 물질적 폭력도 고려한다."라고 블레이크는 말한다.

콜롬비아의 범으로 인해 콜롬비아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교회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목록에 올랐다고 말한다.

2019년 47위로 50위권에 진입한 콜롬비아는 2023년 WWL에서 22위까지 순위가 상승하며 지난해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로 기록되었다. 올해 콜롬비아의 순위는 34위였지만 2023년 71점에서 2024년 68점으로 하락하는 데 그쳤다. 2024년 WWL 중남미 국가 중 1위는 쿠바(22위, 73점)였으며, 독재자 다니엘 오르테가 가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는 지도자들을 가톨릭 교회에 대해 집적으로 인해 니카라과(30위, 70점)가 그 뒤를 이었다. 콜롬비아 다음으로는 멕시코(37위, 68점)가 뒤를 이었

다.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박해 형태는 매우 유사하다."라고 블레이크는 말한다. "마약 밀매 조직은 두 나라 모두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갈취, 납치, 살해하고, 원주민 집단은 기독교인들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배제하며 압력을 행사한다."

베네수엘라(67위, 53점)는 권위주의 사회주의 정부로 인해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외부인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상위 5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곳에서조차 박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계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두 가지 의미에서 목소리를 높이지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통치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불의에 시달리는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도록 기도하십시오."

by HERNÁN RESTREPO, CT

시론

우리가 열어야 할 '그 신앙'의 시대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가까이 있는 리돈도비치에 나가면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 그들은 삶의 목표가 먹이인 듯 관광객들이 떨어뜨리는 빵조각 하나에도 그야말로 손살같이 날아와 부리를 쪼아댄다. 지저분한 쓰레기통 주변을 향해 서도 달려든다. 먹을 것만 있으면.

그렇게 생존하는 수많은 갈매기 떼를 바라보면서 한 마리 조나단을 기억해낸다. 리차드 마크의 '갈매기의 꿈'에 등장했던 조나단을 그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갈매기들 속에서 찾아낸다. 수 십년전 처음 읽었을 때, 소년의 마음에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던 갈매기 조나단. 하늘을 비상(飛翔)하는 그가 기억난다.

갈매기 조나단은 어느 갈매기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도 배고팠지만 먹이를 찾아 쓰레기통을 향해 날아가기 보다 그럴수록 푸른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연습에 더 몰두했다. 다른 갈매기들이 당장 물고기를 향해 달려가 잡아채서 쪼아먹는데 정신이 없을 때에도 그는 끊임없이 개인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보는 사람이 지루할 정도로 같은 행동의 반복, 하늘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가 물을 향해 내리꽂듯 날아가는 훈련,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수없이 반복하는 날아오르기.

다른 친구들은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갈매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지만 조나단 그는 개의치않고 오늘도, 또 오늘도 계속 반복되는 연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의 눈에는 조나단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현실을 무시하는지, 외면하는지 배고픔을 모르는지... 조나단의 반복행동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무시했고, 조롱할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날 외롭게 혼자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조나단은 어느 순간 간간 자신이 수없이 연습하면서도 깨뜨리지 못했던 장벽을 초월하는 감격적인 날을 맞이한다.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높은 곳으로 날 수 있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높은 구름위로 날아가며 창공의 푸르른 영광을 누리던 그에게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이 스며들면서 지독한 고독을 맛보게 된다.

그 때, 둘러보니 어디선가 자신과 비슷한 속도와 높이에서 날고 있는 다른 갈매기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나눈다. 그들 또한 조나단처럼 조롱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왔으며 초월을 통과한 후 지독한 고독을 맛보았다는 고백들을 나눈다. 같은 과정을 포기없이, 타협없이 통과한 조나단과 그 창공의 갈매기들은 자신들의 만남이 고기 한 점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눈으로 쓰레기통 옆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조나단, 그는 마치 갈매기 세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같다. 모든 갈매기들이 가는 길이 아닌,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끝없이 반복해서 날아오르는 미련함을 조롱당하면서도 그 미련한 날아오르기를 계속했던 조나단. 그의 삶이 부럽고 그리운 시대이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교회는 어디에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레 안보이면 좋겠다. 오늘도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 간 조나단처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 가느라 차라리 이 세상에서 보이지않는 곳에 가있는 것이라면 좋겠다.

겨우, 내가 좀 더 큰 물고기 물었다고, 내가 좀 더 큰 먹이를 차지했다고 만족해하고, 자랑하는 군중 갈매기를 떠나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조나단 성도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시대를 걱정하는 세상 전문가들처럼 영성을 풀어내지 말고, 조용히 갈매기 조나단이 되어, 차원이 다른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기 연습에 더욱 골몰하는 '그 신앙'의 시대를 열어가고 싶다.

djlee7777@gmail.com

<15면으로 계속>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1면에서 계속)

멈추기도 하고 다시 출발하기도 하지요. 차가 밀리는 정체 구간에서 브레이크와 액셀레이터에 발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내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수동미션이 달린 차를 몰 때 오토미션 달린 차를 보면서 원발에 쥐가 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어댑티브 스마트 컨트롤 달린 차를 보면서 오른쪽에 쥐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차선 유지 기능은 차 앞에 달린 센서가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운전대를 조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두 손 놓고 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돌 방지 시스템은 말 그대로 추돌 위험이 있을 때 급제동을 걸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을 달고 외제차 한번 박을 일을 막아주면 충분히 제값을 하는 기능

입니다. 차선 유지 기능이 가능하려면 운전대가 유압식 운전대가 아닌 전자식 운전대여야 합니다. 그레야 컴퓨터가 전자신호로 운전대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제 차는 유압식 운전대라서 이게 오픈마켓을 이용한다고 해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꿈의 기능인 셈입니다.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운전자의 조작없이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중화를 이루지 못해서 완벽한 형태의 자율주행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만 기술들은 이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스스로 주차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목적지만 입력하면 알아서 데려다줍니다. 문도 열어 주고, 실내 온도도 맞춰 주고,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 음악도 틀어 줍니다.

이런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것은 인공지능의 발달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 러닝 기술이 개발된 지 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미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중 한 예가 이세돌 9단과 겨룬 알파고이지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인공지능이 인간 생활의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 삶의 편의성을 극대화해 줄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 되어 있는 기술들이라고 해도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경우 운전자의 의도를 벗어나는 운전이 되면 이젠 생명을 위협하는 폭탄이 되고 말지요.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운전한다고 해도 그 기능을 부여해 주는 인간의 명령을 벗어나 버리면 그 차는 쓸모없는 차가 되고 맙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만약 통제를 벗어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그것을 어떻게 제지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은 분명 인간에게 유익한 기능이라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선한 통제 아래서 운영될 때만 유익한 기술입니다. 악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나쁜 의도로 이용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지요. 더 나아가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인다면 인간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과연 인공지능을 선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앞에 나타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탑승자를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주인인 탑승자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다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지요.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Exam Subjects

-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 (1) OT Exegesis Text : Leviticus 1:1-9
- (2) NT Exegesis Text : Galatians 2:11-21
- (3) Thesis Topic : "Revitalization Plans & Strategies for Sunday School (Next Generation) after Pandemic"
- (4) Sermon Text : (Choose One) O.T- Judges 2:1-10 "There Arose Another Generation after Them", N.T- Colossians 1:24 "Lacking in the Sufferings of Christ"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JosephKim-OTExegesisPaper.pdf)
 -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0, 2024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30, 2024.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1-24, 20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20(Mon)~21(Tue), 2024
- b) Place :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0,21) through Rev. Joseph Kim
- b)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Joseph Y. Kim
Address :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Cell : 213-215-8523 E-mail : laredeemer@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H. Park (917) 254-0887 heepark91@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Y. Kim 213-215-8523 laredeemer@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김성국 목사
서기 : 유진상 목사
고시부장 :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 김요섭 목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진리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또한 지식이 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은 과학이 발전함으로 늘 가변성이 있다. 일례로 중세에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과학의 발전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평평하다는 사실은 수정되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진리가 아니기에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

가 기록된 이후로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유는 성령께서 고비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무수한 책들은 역사와 더불어 수많은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해야 했으나 성서는 처음 기록될 때부터 완전했고, 세상 종말이 오기까지 일점일획도 수정되지 않는 완벽함으로 보존될 것이다. 이런 일에 수많은 영적 탁월한 리더가 일어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할 때마다 온몸으로 막아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기도 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두 사도들이 하나같이 목숨을 버려야 했다. 그뿐인가? 그 후에들이 지금도 온 세계 각처에서 진리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다. 아마도 예수님의 희생 이후로 복음의 진리를 좇아 순교 당한 무리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다(계 6:9-11). 제단 앞에서 우리를 신원하여 달라고 애원하는 순교 당한 영혼들의 요청 앞에서 말이다. 이처럼 진리를 지키는 일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동서방 교회가 교리 문제로 다투자, 콘스탄틴 대제는 그들을 일치시키려고 했다. 혼란스러웠던 로마제국을 통일한 황제는 이런 기독교적 교리 문제를 일치시키는 일을 가볍게 여겼다. 칼과 창으로 목숨 걸고 싸워 통일을 이뤘는데, 조장조장한 늑대들이 성경 해석 문제로 핏빛 부리는 일을 역전의 노장이 보았을 때 대수롭지 않

게 여길 수 있었다. 그는 황제의 이름으로 로마제국 내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별궁이 있는 니케야(현Iznik)로 모이도록 명했다. 그래서 각처에서 주교 380명이 모였다. 그 당시 공회의 주제는 예수님의 신성 문제였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니 아버지보다는 조금 낮은 분이라는 주장이 강력했다. 동방에서 참석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 논리를 합당하게 여겼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주교 보좌관으로 동행한 아타나시우스 부제가 있었는데 그는 젊고 외모도 불품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동방 주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주장에 목숨을 걸고 싸웠고 마침내 승리하였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교리가 채택되었고, 그는 그 이유로 일곱 번이나 유배를 가야 했다. 그 후에 또한 부딪친 문제가 성령님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이 논리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결별하게 된 중요한 문제였고 지금까지도 일치해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게 무엇일까? 아들에 관한 문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았다(히 1:5)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에 논쟁의 여지가 없었으나, 성령의 문제는 요15:26,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를 근거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 나오신다는 신조로 채택했다. 그런데 589년 톨레도에서 열린 제3차 전국 공의회에서 율리오 케(Filioche,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심)라는 단어를 라틴어 신조에 등장시켰고 로마교회의 중요한 신앙으로 삼았다. 이 교리는 동방교회와 큰 다툼의 매체가 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요20:22,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위대한 신학자 안셀무스는 어거스틴을 따라 동방교회의 주장에 반대하여 성령이 성부에게서뿐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나왔다는 입장을 지지

했다. 이처럼 기독교 이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목숨 건 투쟁들이 있었다. 1517년, 마틴루터의 종교개혁 운동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고--- 그런데 지난 2020년 10월 교황은 놀라운 발표를 했다. 동성애에 대한 시민결합(Civil Union) 선언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였다. 이것은 성서에 명백히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행위다. 그 선언으로 일선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가톨릭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대립한다고 하고, 이천 년 동안 지켜온 진리를 변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성서의 진리는 지켜져야 한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는지 모른다. 그것을 곧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가?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임수병 목사
(필라교협 회장, 필라사랑의교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성경 얘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 '모세의 홍해의 기적 사건'일 것입니다.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때푸기 재앙, 그리고 장자가 죽는 재앙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열 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뒤덮었고, 이집트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던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 그들을 추격해 오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었던 홍해가 갑자기 그들을 막고 있는 커다란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다 밑 육지로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베드로가 물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리 어색한 얘기도 아닙니다. 또 어차피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또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위를 걸어서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 병사들은 그들을 따라 물위를 건다가 갑자기 그 애굽 병사들을 삼켜 버리면 되잖아요. 왜일까요? 왜 물 위를 걷게 하지 않으시고 물밑을 걷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나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은 '바로'입니다. 지금 열 가지 재앙을 맞아 그의 나라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그의 가정도 자기 큰아들까지 죽으면서 '퐁비박산'이 났습니다. 그 만하면 하나님께 항복할 만도 합니다. 아니, 사실은 항복했죠. 그런데 다시 덩벼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열 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그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모

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다. 알기는 하는데, 알았다 몰랐다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 싸움이 자기들이 하는 싸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자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도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애굽 사람'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노예가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은 '애굽 군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채찍을 들고 있는 모습, 칼을 들고 있는 모습에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군사들은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을 타고 달려 들고 있는, 독기 품은 군대였습니다.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요? 그 싸움이 '애굽과 자기들(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향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이해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가장 쉬운 일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두려울 때는 소리라도 지르고 누군가에게 호소해야 될 두렵습니다. 왜 애굽과의 싸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까요? 사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진짜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지금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애굽 대 이스라엘의 싸움'도 아니고, 심지어 '애굽 대 하나님의 싸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는 싸

를 고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니느웨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요~나) 출애굽기의 주제는 '애굽과' 바로와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4 복음서의 주제는 주님이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과 싸우시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주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곧 우리들)과 싸우시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고치기 전에 교회를 고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싸우고 계십니다. 나를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왜 야곱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씨름야 했을까요? 깨지지 않으려는 자와 깨뜨리려 하는 자가

강에서 붙잡고 있었던, 오늘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었던, 그리고 오늘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입니다. 형 에서가 두려운 것이고요, 애굽 사람 (바로)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긴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을 치유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홍해 사건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이 오면 작은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세상은 기껏해야 우리의 몸을 죽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홍해의 기적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대 이스라엘', 혹은 '애굽 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건 보이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홍해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하나님과 나와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정말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무엇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산신령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colippastor@gmail.com

“보이지 않는 싸움”(THE INVISIBLE WAR) 출애굽기 14:13-14, 26-31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싸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 vs 애굽 군사(바로)의 싸움이 보입니다. 그것은 소위 '보이는 싸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보이는 싸움에 집중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애굽 군사들과의 싸움 말고 오늘 이 홍해의 사건 속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무엇일까요? '애굽 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대 여호와와 하나

실을 금세 까먹고 또다시 덩벼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실은 지금까지 그가 겪은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적이 있는데, 적이 안 보입니다. 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흑암이 덮이고.... 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적이 눈에 보입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울지도 환히 보입니다. 그에게는 칼이 있고, 병기가 있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기필코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그가 내린 또 한 번의 오판입니다. 그는 그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또 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데 자기들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로는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보이는 이스라엘과 싸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나 vs 하나님

하나님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움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싸움이라고도 할 수 없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싸우고 계신 싸움은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싸움, 즉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홍해의 싸움에서 끝나는 싸움도 아니고, 광야생활 내내 이어지는 싸움입니다. 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억지로 바꾸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보다 더 강박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시며 싸움을 그만두게 하시며 그들과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왜 물위를 걷게 하지 않으시고 물 아래 땅을 밟아 걷게 하셨을까요? 물위를 걸었다면 이 교만한 백성이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위를 걸었노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다 밑을 걸었을 뿐입니다. 바다 밑을 마른 땅 걸듯이 통과하며 그들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왔던 말은, '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싸움은 나와 XX와의 싸움도 아니고, 나와 어떤 상황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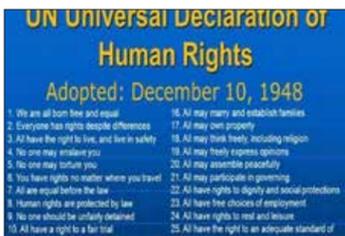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줄곧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고집스런' 야곱과 그 고집을 마침내 부숴 버리고야 말겠다고 '고집하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깨지지 않으려고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허벅지가 부러진 쪽은 분명히 야곱인데 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말씀하실까요? 진짜 이김은 내가 죽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To die is gain! 진짜 이김은 내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걸 기어이 끝낼래 포기하지 않고 야곱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그 싸움이 다시 만나야 할 자기 형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 싸움은 나와 너의 싸움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 있는 '사람(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압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밤새 싸워야 할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싸우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압박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유엔, 부모와 자녀를 공격하는 성적 권리와 젠더 이데올로기 추진함과 동시 글로벌 무시되는 "학부모 권리" - 크리스천의 대응책은? -1-



얼마전, 유엔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제기구의 관료들은 모든 사회의 근간인 가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서와 유엔 조약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활동가들은 유엔 관료제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의 권리와 의무보다 정부 행위자와 전문가를 우위에 두는 아동 권리를 발전시키는 데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가들은 유엔의 인권 기구, 의료 기관(세계보건기구), 교육 프로그램 등에 침투하여 유엔 전체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침투시켰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제 새로운(new) 페미니즘에 뿌리를 둔 비판 이론의 한 분야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인 '남·여' 대신, 내적 성별 감각에 따라서 (예: zis or zer, they, them, cis, fluid, cat, dog 등등) '지금의 느낌이 내 성별 젠더의 진실'이라고 종속시킵니다. 하지만, 유엔이 몰아가는 이 젠더 방향은 이미 실패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또는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을 만큼 다음세대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에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을 앞선 유럽의 경우들을 연구한 조사들만 봐도, 사회, 법률 및 의료 기관을 통한 이런 감정대로 선택하라는 젠더 이데올로기-사상운동의 여파들이 지나간 곳마다 파괴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유엔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진적인 이념을 전파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에 대한 방대한 프로그램과 자금이 투입되어 있어 쉽게 표적이 될 수 있고 효과적인 전달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이란?

1. 이름/명칭에 속으면 안됩니다. 이 "Comprehensive Sex Education-포괄적 성교육" 용어는 의도적으로 무해한 용어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위 "Comprehensive Sex Education-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명목아래, 유엔이나 이미 오바마 전대통령때부터 홍보하고 의 무화한 "포괄적 성교육"은 학부모가 자녀들의 고귀한 정체성을 보호할 권리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고 이런 교육으로 자녀를 잃는 학부모들이 땅을 치고 개탄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 평범한 "성교육"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부모, 정책 입안자, 외교관들,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과 교육위원장들마저도 "Comprehensive Sex Education-포괄적 성교육"이 임신과 성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성관계' 훈계와 함께 전달되는 조언과 결과에 대한 교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 진짜 "포괄적 성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포괄적 성교육 커리큘럼은 인권적 언어 (Human's Rights, Children's Rights, Student's Rights 등등) 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성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노골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배운 성의 가치, 도덕적 가치, 삶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장려하고 젠더 이데올로기의 교리를 주입합니다. 한마디로, 미국뿐 아니라 유엔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향, 젠더 이데올로기"를 마치 종교 교리의 수준으로 완전히 몰아넣도록 주입시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인은 이미 유엔 교육 과학문화기구를 통해서도 검증된바 있다. 유네스코는 다른 유엔 기구와 협력하여 '성교육에 관한 국제 기술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 지침의 자문 그룹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낙태 대기업이자 가장 문란한, 소아성애자도(어른과 어린이의 성관계)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국제가족계획연맹, World Association of Sexology- 세계 성학 협회, Population Council-인구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린이들, 태어나자마자 느낄 수만 있다면 이런 어린이들의 "성적 권리"를 장려하는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포괄적인 성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을 갖추게 하여" "존중하는 사회적, 성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평생 동안 자신의 성적 관계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의 가치관을 바꾸고 권리에 기반한 성 관점을 장려하기 위해 공립학교 시스템과 교사를 바꾸기에 "사상" 운동으로까지 번지는 것입니다. 아동에게 성적 권리가 있음을 가르침으로써 성을 결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선물로 여기는 부모나 종교적 메시지가 고대시대 이야기라고 약화시키고 마치 시대에 뒤지는 행위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지침들은 유엔 기관들이 유엔이 이미 만들었던 조약들(위 사진)과 모순되는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국가는 부모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교육을 감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이들이 재해석하는 내용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은 최근 보고서에서 다음처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학생 건강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성별을 변화(gender identity, sexuality change)시키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성(gender identity) 및 섹슈얼리티(sexuality)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건강에 대한 정보(gender & sexuality health)를 제공해야 한다."

참로고, 저희 단체 TVNEXT.org 은 지난 13년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받지 말라고,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까지 강력히 호소하며, "포괄적 성교육"이 법으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2010년) 부터 이미 미 전역으로 공립학교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한 성교육이기에 지금 그 파장은 엄청납니다. 특별히 서부와 동부에서 포괄적 성교육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매우 화가 나서 학군미팅마다 나와서 항의하는 학부모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자녀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주일 학교는 어떻게 이런 일에 있어 변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다음호에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중국의 문화혁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문화혁명 후에 일어난 놀라운 중국교회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실비치에서 권 권사님

문화혁명

A: 과거 중국은 1966년에서 1976년까지 공산당 모택동 즉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파사구(破四舊)라 해서 구시대적인 4가지 것들을 다 파괴하고 없앤다는 뜻입니다. 낡은 사상,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타파하여 사회주의 문화를 참신하게 창조하여 새로운 중국을 만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모조리 숙청하자 해서 중국의 지식인들, 고위간부들을 다 숙청했고 과거 중국 수천 년의 문화재같은 것들을 다 파괴하였습니다. 현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의 아버지도 문화혁명 때에 고위 간부에서 쫓겨나 아들 시진핑도 토굴집에서 살면서 힘든 날을 지내었다고 합니다. 문화혁명 때에 모든 종교들도 다 미신이고 구 시대사상이라고 해서 다 없애는 통에 기독교도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이 젊은 홍위병을 동원하여 모든 해외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인 목사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교회당에 못 짚을 하며 성경을 몰래두고 기독교를 씨도 없이 없애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시에 비밀리에 가정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1976년에 마오쩌둥은 죽었습니다. 문화혁명 때에 중국경제는 추락하여 1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1976년 중국의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을 펴게 되었고 기독교회에도 어느 정도 자유를 주게 되었습니다. 문화혁명 후에 10년만에 교회가 뚜껑을 열자 2가지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하 가정교회로 확장되고 전환되었습니다. 핍박시에 중국교회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면서 오히려 기독교인 숫자가 10년만에 30배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문화혁명 후에 5,000만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불은 바람이 불면 더 퍼진다는 말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핍박시에 중국교회는 지하교회로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교회로 모였는데 가정교회 지도자가 설교하고 성경공부하고 친교하며 찬송을 인도하였습니다.

둘째, 더 순수한 교회의 모습으로 개혁되었습니다. 가정교회는 그동안의 교파주의를 극복하고 더 순수해지고 평신도의 지도력이 교회에 강화되었습니다. 박해시에 평신도 지도자가 목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정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자 하나님은 중국에 경제적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하워드 슈나이다의 "21century foresight"라는 책에서 중국은 앞으로 21세기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공산당 8,000만명보다 넘어가 1억 2천 이상이 되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중국 공산당은 교회의 심자가 간판을 강제로 떼고 교회에 CCTV를 달게하여 헌신하고 현재 기독교는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교적 헌신을 중국 공산당의 위협요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핍박 속에서도 중국 기독교회는 2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흥도시교회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실시하고 소수 민족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독교 탄압은 선교 중국시대를 알리는 신흥도시교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 신흥가정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로 가정교회의 전통을 따르되 주로 젊은 지식층에 의해 주도되고 구성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23)913-4499, www.lsgc.com / www.lsgc.org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수 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예배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0777, Fax: (714)772-0777 1111 N. Bookhurst Dr.,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를 돌아다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310)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세백기도회(월-토): 오전 6:00</p> <p>Tel: (213)281-2202, www.mpcsl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일예배: 오전 1:30(수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iblehall.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회</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월-토)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77 / www.wmca.com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p>
<p>셀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침례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셀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Unit Clubhouse 3 room 1(1F)</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지역원</p>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회동목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10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 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세백기도회: (월-토) 오전 5:30 (분당)</p> <p>Tel: (213)71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랑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운영</p> <p>Tel: (714)446-6202, www.graecm.org / www.bk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새문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목: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영성): 오전 11:45 송년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org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10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 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세백기도회: (월-토) 오전 5:30 (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평강교회</p> <p>담임목사: 송금관</p> <p>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의 교회: 오후 1:00 TEE-동요운송실(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일 새벽 2:00-3:30 목요 기도회: 오전 9: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세백기도회(토): 오전 6:00</p> <p>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상상도 못한 변화 속에서”

올해 초에 선교사 재파송을 받고 다시 예전에 사역하던 말레이시아로 다시 돌아왔다. 7년 6개월 만에 돌아온 이곳은 그동안 적응하며 살았던 미국과는 예측 불허의 다른 모습이

되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거리에서 봐도 세계 모든 인종들이 다양하게 섞여 살고 있으며 세계의 그 어느 곳보다 훨씬 빠른 변화를 거치고 상상 이상의 다른 세계를 펼쳐

내고 있다. 이미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회가 더 이상 아니라 나를 당황하게 만든다. 우리와 오랫동안 동역하던 현지 교회 주일 예배는 이미 8개의 언어

로 진행되는 예배가 존재했으나 이전 종종 모든 언어를 존중하며 연합 예배가 진행된다. 물론 스마트폰 통역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8개의 언어권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끼어서 앞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자기 언어로 집중하면 된다. 마치 천국의 예배를 이곳 지상에서 미리 보는 듯하여 전혀 언어가 다른 불편함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모든 식당, 상점, 메트로 전철에서 더 이상 현찰은 거의 사용 불가능하다. 각자의 카드나 스마트폰에 이미 입금된 카드페이를 사용해 야만 한다. 정부에선 여행자들도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먼저 입금하고 필요대로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니 스마트폰이 부담스러울 노인들조차 이런 매일의 삶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변화에 대처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자동차를 파킹해도 앱을 이용해 페이를 하고 음식도 앱으로 페이가 되어야 배달이 가능하다. 얘기를 들으니 지난 3년간의 팬데믹이 이런 변화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쿠알라룸푸르만 아닌 오늘날 아시아의 대부분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다. 모든 사회생활에 필요한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깔고 이제는 앱이 삶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이나 서구보다 상대적으로 이런 변화가 더 빠른 이유는 젊은 세대가

서구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젊은 인구는 미래를 밝게 만들고 더 빠른 변화가 부작용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젊은 이들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개혁의 가능성을 더 밝게 하고 무한한 도전을 주고있다. 아니,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나에게 이곳 사회는 새로운 것을 부담 없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며 고무적인 마음이 되었다. 무슬림들조차도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있다.

gyp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교회 붕괴, 성직자 침 테러’ 이스라엘 전쟁 기독교 근황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내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인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독일베네딕도회교회의 니코데무스 슈나벨 수도원장은 지난 3일 지나가는 두 명의 젊은이에게 욕설을 듣고 침을 맞았다. 두 명의 유대인 이스라엘인은 기독교 성직자를 모욕한 혐의로 가택연금 형태로 구금됐다. 용의자 중 한 명은 17세다. 슈나벨 수도원장은 “이 사건은 팔레스타인 성직자 삶의 일부분만 보여주는 데 불과하다”며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지난 10월 초 구시가지에 열린 초막절 행사에서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침 테러가 있었다. 이 사건으로 당시 5명이 체포됐다. 팔레스타인 내 기독교인을 향한 폭력적 행위가 반복되는 데는 이스라엘 정부의 솜방망이 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당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나 라틴계 총대주교인 피에르 바티스타 추기경은 “가장 우파적 네타냐후 정부가 기독교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반박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부부 또한 “이러한 폭력은 극우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에 의해 선동된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 입장을 비난했다.

기독교를 향한 폭력 행위는 교회시설로도 이어졌다. BBC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두 달 간 예루살렘 내 파괴되거나 훼손된 종교시설은 74곳이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축발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종교 시설에 대한 파괴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 성포르피리우스교회는 이스라엘 정부의 공격으로 현재 무너져 내렸다. 교회에서 피난해있던 기독교인 18명이 숨졌다. 사고가 벌어진 현장에 있던 라미 타라지는 BBC에 “교회 다른 건물에 있던 교인들까지 먼지에 뒤덮일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기술했다. 그는 당시 폭격으로 사촌을 잃었다. 라미는 “불과 1시간 전 나와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살벌한 전쟁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잃지 않는다. 마리안 사바는 가족과 함께 붕괴한 성포르피리우스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재 기독교인 300여 명이 성 포르피리우스 교회에서 살고 있다. 사바는 “교회가 파괴된 지 9일 후에 딸 카일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며 “기쁨이여야 할 세례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온화로 허리케인 더 세졌다... ‘메가폭풍 등급 신설해야’

기후변화로 허리케인이 과거보다 더 강력해

진 만큼 현재의 강도 분류에 ‘메가 폭풍’ 등급을 추가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제안이 나왔다.



현재는 가장 약한 1등급에서 가장 강한 5등급까지 5개 범주로 분류되는데, 극단적으로 강한 초대형 ‘메가 허리케인’을 분류하기 위해 6등급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과학자 마이클 웨너와 미 국립해양 대기청(NOAA) 출신의 과학자 제임스 코신은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이같은 허리케인 등급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의 허리케인 등급은 1970년대 초 미 토목공학자 허버트 사피어와 로버트 심프슨 전 미 국립허리케인센터장이 만든 것이다. 풍속을 기준으로 볼 때 1등급은 시속 74~95마일(119~153km)이 나무와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 주택에 피해를 주는 수준이며 등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진다. 5등급의 경우 시속 157마일(252km) 이상으로 인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웨너 연구팀은 시속 192마일(309km) 이상을 6등급으로 분류하면 지난 10년간 5개의 폭풍이 6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3년 필리핀에서 6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하이옌’과 2015년 멕시코 서남부 연안을 강타한 최고 풍속 시속 215마일(346km)의 허리케인 ‘퍼트리샤’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같은 초대형 허리케인이 바다와 대기 온난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웨너는 6등급 신설은 기후 변화가 가장 강력한 폭풍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싼값에 변칙 공격’ FPV 드론, 새로운 전쟁 시대 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면에 등장한 ‘1인칭 시점(FPV) 드론’은 현대 전 패러다임을 바꾼 ‘게임 체인저’ 병기로 평가된다. 이 드론은 본래 레이싱 스포츠 목적으로 제작됐지만 폭탄을 싣고 날아가 투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살상무기로 진화했다. 지구상 주요 전장과 수많은 분쟁지역에서 FPV 드론이 차지하는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5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FPV 드론 활약상에 주목하며 “전쟁 초기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FPV 드론은 현재 최전선에서 신화에 가까운 지위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장기화로 바다난 포탄을 대신해 FPV 드론을 앞세워 고전 중인 전황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보통 12~16명이 한 팀을 이루는 우크라이나군 돌격대가 작전을 수행할 때 6명가량의 FPV 드론 조종사가 동행할 정도다.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활동하는 드론부대 ‘아킬레스’는 “최근 대당 300~500달러(40만~66만원)

짜리 FPV 드론 몇 대만으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중무기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FPV 드론이 전장에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이다. 탱크·장갑차로 밀고 들어가는 기갑부대 전격전과 미사일·포탄을 퍼붓는 포병 중심 화력전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전투원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FPV 드론은 수백 달러로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데다 타격의 정확도와 살상 효과도 크다. 우크라이나가 FPV 드론 의존도를 대폭 높인 것은 정면승부를 하기보다 상대의 취약점을 노리는 비대칭전에 집중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는 FPV 드론을 ‘가미카제(자살특공대) 드론’으로 표현하며 “FPV 드론의 등장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 전쟁의 기존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는 악몽 같은 무기”라고 평가했다. 드론이 지닌 또 다른 강점은 공격받는 쪽 입장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올지 종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친이란 민병대가 우르단 주둔 미군기지를 드론으로 타격해 미군 3명을 살해했다.

“후티 반군, 홍해 해저케이블 실제로 파괴 가능” 경고

후티 반군이 실제로 홍해의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홍해는 전 세계 인터넷 통신량의 약 17%를 해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송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예멘의 통신사들은 후티 반군이 서반구의 인터넷과 금융 데이터 전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홍해 해저 케이블망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후티 반군과 연계된 텔레그램 계정은 홍해 해저에 설치된 케이블 지도를 공개하고 “예멘은 전 대륙을 연결하는 인터넷 회선이 근처를 지나가기 때문에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홍해 해저에는 16개의 해저 케이블이 설치돼 있다. 이 중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홍해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2만5000km 길이의 아시아-아프리카-유럽 AE-1 케이블이다. 걸프 안보 포럼의 보안분석가들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후티에게 (파괴할) 동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이 부족해 케이블이 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후티는 미사일 등을 통해 해상 운송을 방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케이블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잠수정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해 해저케이블의 일부는 수심 100m에 설치돼 있어 첨단 잠수함이나 잠수정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2013년 이집트에서는 유럽과 이집트 간 인터넷 통신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알렉산드리아 항구 인근 해저 케이블을 끊으려고 한 잠수부 3명이 체포된 적이 있다. 예멘 정부의 무아마르 알 에라니 정보장관은 “후티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 중 하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후티는 상한선이 없는 한계가 없는 테러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모하메드 압둘 살람 후티 대변인은 예멘에 대한 미·영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훗 찰스 3세 암 진단... 75세 고령, 공개 행사서 물러나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즉위한 지 1년5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았다. 75세 고령의 국왕이 투병하게 되면서 영국 왕실에 비상이 걸렸다. 왕

위 계승 서열 1위 윌리엄(41) 왕세자를 포함한 왕가의 향후 역할에 시선이 쏠린다.



버킹엄궁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국왕이 지난주 전립선 비대증 치료 중 암을 발견해 치료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암의 종류나 발병 부위, 진행 단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립선암은 아니”고 버킹엄궁은 밝혔다. 그러면서 “국왕이 공개 행사에서 물러나 있어도 국가원수로서 서유 작업과 비공개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찰스 3세는 2022년 9월 8일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면서 즉위했다. 그때까지 70년간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지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제 막 즉위한 국왕의 암 투병으로 왕실에 새로운 혼란이 찾아왔다”며 “70대 중반인 국왕의 공무 수행 복귀를 기대하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영국 국왕이 헌법상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권한은 섭정에게 이양된다”며 “1937년 섭정법에 따라 윌리엄 왕세자가 섭정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왕실과 불화한 끝에 미국으로 이주한 해리 왕자는 아버지 찰스 3세와 통화해 암 진단 관련 대화를 나눴고, 며칠 내로 영국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날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은 찰스 3세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하마스 수장, 도망 다니느라 바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수장 아히야 신와르에 대해 “도망을 다니느라 조직을 통솔하지 못하고, 개인적 생존에 바쁘다”고 주장했다.



갈란트 장관은 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최근 산와르의 근거지에서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산와르는 은신처에서 또 다른 은신처로 숨어나다니느라 주변인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이끌지 못하고, 하마스 군사 조직을 지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와르는 개인적인 생존에 바쁘다. 하마스 수장에서 도망을 다니는 테러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가자지구 체류자와 해외에서 망명 중인 구성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다”며 “이는 하마스가 내부적 공황 상태를 겪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갈란트 장관은 “정치적 대안을 진전시켜야 하마스 통치의 종말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민간을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설정한 정치적 목표를 충족하려면 지금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전을 펼치고 있으며 하마스 부대 24개 중 18개를 격멸했고 대원 절반을 사살하거나 부상을 입혔다고 갈란트 장관은 밝혔다. 갈란트 장관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와 중부에 일부 잔존하는 하마스 대원들을 향해 “이스라엘군이 곧 남은 요새에 도달할 것”이라며 “숨어 있는 하마스 대원의 마지막 순간은 가자시티, 칸 유니스에 있던 동료들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신학 비판 (2)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 칼 바르트 (Karl Barth)와 신정통주의 (Neo-orthodoxy) (2)

(1) 바르트와 신정통주의의 성경관

신정통주의 신학자 바르트와 브루너 (Barth and Brunner)는 성경을 객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했다. 그들은 성경이 기껏해야 인간 문서의 모음집에 불과하다 (a collection of merely human documents)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 문서를 사용하여 독자와의 "만남" (encounter)을 일으키심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the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고 한다. 그러나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성경이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사실임을 믿고 고백하는 동시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다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대립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인간의 태도와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인간의 지지와 증명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다 (the self-attestation of Scripture).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에서,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 있지 않다. 오직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The authority of the Holy Scripture,

for which it ought to be believed, and obeyed, depends not upon the testimony of any man, or Church; but wholly upon God (who is truth itself) the author thereof: and therefore, it is to be received, because it is the Word of God).

칼 바르트는 이전 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은 초자연적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한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정통주의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 (The theology of the Word of God)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바르트의 신정통신학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개혁주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통 개혁주의 언어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Barth does use Reformed language but he means something totally different).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한다. 바르트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Scripture merely witnesses to the Word of God)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은 성경의 무오성과 무흠성을 (inerrancy and infallibility) 부정한다. 그들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건의 간접적인 매체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명제도 가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는 너무나 커서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이며, 이 만남은 신비적이기 때문에, 명제적으로 묘사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만남은 주관적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다. (Encounters with Jesus Christ, the revelation of God, is but mystical, not something describable propositionally, for the encounter is subjective and ineffable).

바르트의 변증법적인 계시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피조물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계시이시며, 이 계시는 마치 점선과 같아서 단순히 원에 접촉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과 같다 (Our Lord is the revelation that never truly enter creation, but merely touches us as a tangent touches a circle - that is without truly touching it).

로마서 주석에서 바르트는 "로마서는 미지의 하나님 (the unknown God)에 대한 계시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기로 작정하셨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계시가 있는 후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미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했다. 바르트는 항상 하나님의 초월성 (God's transcendence)을 강조한다.

(2) 바르트의 두가지 역사영역

바르트는 특별한 종류의 역사 개념을 근거로 해서 신학을 세웠다. 즉 연대기 (chronological)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적인 역사 (Historie)와 역사를 초월하는 의미로서의 역사 (geschichte)를 나누고 의미로서의 역사를 신학의 기초로 삼았다.

바르트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육안으로 관찰되어질 수 없으며 (geschichte), 다른 한편으로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는 (Historie) 예수님을 나누어서 설명했다. 바르트의 변증법에 의하면 우리 주

님은 결코 역사(Historie)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초역사적인 역사에서 (Geschichte) 다시 부활하셨다.

박윤선 박사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바르트가 역사의 차원을 두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것은 플라톤적 이분법적 이해이며 이것은 성경에 합치하지 않은 사고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역사 이해는 성경의 계시를 사실적 사건의 역사차원에서 실존적 해석의 (특히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차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을바로 평가했다. 박윤선 박사는 계속해서 바르트의 초월주의 (transcendentalism)적 계시관을 바빙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비판한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주의가 아니라, 온 인류와 세계에 깊이 참여하여 역사하신다").

그리고 박윤선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정통 개혁주의 계시관을 주장한다: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신 분 (the transcendence of God)으로서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역사계에 들어오셔서 피조물인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일 수 있다 (하나님의 내재성, The immanence of God).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물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박윤선 박사는 하나님과 만물을 구분하는 점에서 범신론을 배격하면서도,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동시에 피조물속에 내재하시니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다.

(3) 일반계시를 부정하는 바르트

바르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가 유일한 계시라고 주장하면서, 자연계시라는 또 하나의 독립적인 계시가 있을 수 없다" 주장했고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하나님의 성품의 단일성을 분열시키며,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바르트는 "창조에 대한 역사적 계시, 곧 시간과 공간계의 계시(피조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는 명백하게 계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박윤선 박사는 바빙크를 인용하면서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이렇게 설명한다: "개혁주의 신학은 피조물들 자체를 가리켜 '일반계시 또는 자연계시'라고 부른다. 칼빈주의자 바빙크

는 일반계시나 특별계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반대를 물리치고 그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일반계시 (자연계시)에 관하여 바르트와 브루너 (Emil Brunner)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부루너는 일반계시를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러나 비해 바르트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부루너는 인간이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부루너에 의하면 자연계시는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안에 있는 구원의 길은 가르쳐 주지는 않고, 다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바르트는 부루너의 주장에 답변하면서 [Nein! Antwort an Emil Brunner] ("No! 부루너에 대한 대답," 1946) 이란 책을 통해서 부루너의 입장을 반박했다. 바르트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바르트는 일반(자연) 계시를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오직 하나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참된 계시이다. 이에 대해 부루너는 하나님의 창조는 계시이며,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하나님의 계시이다. 자연계시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죄에 의해 크게 왜곡되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파괴되어지지 않았다 (distorted and twisted, not totally destroyed)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연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초보적인 단계의 하나님의 인식의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르트와 부루너의 자연계시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바르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부루너: 죄로 말미암아 인간인의 하나님의 형상의 부서지고 왜곡되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전적으로 파괴되지 아니하였다.

바르트: 일반 계시가 있다는 주장은 거부되어야 한다. 오직 하나의 온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부루너: 세계는 창조물인 동시에 계시이며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KHL0206@gmail.com

예수님은 왜 그날과...

(2면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다"(히 13:8).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든 누구라는 점을 오로지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따라서만 확증해야 한다. 이 진리를 설명하려는 의도가 없는 특정 구절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며 또한 사람이시다. 예를 들어, 칼뱅은 마태복음 24:36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단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본성이 각각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었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으로서 아들은 모르는 게 없으시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36에서 드러난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24:36에서 예수님의 인성은 그분의 무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 (Gregory Nazianzus)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의 무지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귀속시킴으로, 우리는 가장 경건한 방식으로 이 구절

을 이해해야 한다"(Or. 30). 그리고 그레고리도 지적했듯이,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살아야만 했던 이유도 "내 몸으로 내가 직접 감당하지 않고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이었다(Epistle 101 to Cledonius).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처럼, 즉 몸과 영혼과 정신으로 살아야만 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시험과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진정한 인간으로 사셨다.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공감하기 위해 "살과 피"를 취하셨다(히 2:17-18).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5:7에서 분명하게 밝히듯이 예수님도 인간의 슬픔과 염려가 있으셨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으로써 기도하고 탄원을 올리셨습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시다"(히 5:7). 조금 앞서 히브리서 4:15은 이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합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히 4:15).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마 26:38)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연합함이 어떤 느낌인지 아신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1:5-6)고 확증해야 한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롬 8:3)으로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히 4:15) 참 인간이시다.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셨다. 칼뱅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요 21:17)가 인간으로서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부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슬픔과 불안과 겪지 않으셨을 것이고, 결코 우리와 같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히 2:17)"(Harmony, 154).

칼뱅은 슬픔과 불안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시련과 유혹을 경험하셔야만 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는 우리를 공감할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도 시험을 이기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므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시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벧전 2:21-22).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칼뱅은 마태복음 24:36이 드러내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무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긴 문장으로 설명한다. "중보자가 되려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계

시는 동안에 한해서, 그래서 최소한 그가 직분을 완수할 때까지는, 정확한 종말 시점에 관한 정보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점을 나는 이해한다. 그건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받은 지식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고 나서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다(마 28:18절)" (Harmony, 154). 중보자되신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인간처럼 알고 계실 뿐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한 지식을 받으셨다는 게 칼뱅의 주장이다. 칼뱅은 성경 전체를 자신만의 문맥으로 이해해서 읽었기에 이 구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본성이 각각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었다"(Harmony, 154).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4:36을 읽어야 한다. 즉, 신학적으로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성경적이지 않다는 점을 칼뱅은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성에서도 특별한 부분, 즉 그날과 그 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시는 동안에도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이었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때는 쉬는 상태(a state of repose)였다는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즉 인성이 고유한 특성에 따라 별

도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신성은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Harmony, 154). 칼뱅이 의미하는 바는 때때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신성이 더 드러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와 구속주로 오셨다는 사실이다. 구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서 예수님의 무지는 그분의 참된 인성을 보여주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준다. 힐러리는 그 점을 지적한다. "주님께서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의 무게를 없애셨다" (Matthew 26:4).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행 1:7).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굴욕을 당하시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셨고, 그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참 인간으로 사셨음을 의미한다.

성경은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한다

아리우스파가 성경을 문맥에 맞게 읽지 않는다는 힐러리의 비판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마태복음 24:36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떼어내서 읽는다는 의미였다.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나머지 가르침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 구절을 이해했다. 힐러리의 지적은 단순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도록 성경 전체에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마태복음 24장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해 길게 가르치지 않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그 점을 배울 수 있다. 성경의 각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읽어야 한다. 마태복음 24:36 주위의 몇 구절만 읽는 것은 문맥을 떠나 성경을 읽는 것이다. 힐러리의 주장에 따르면, 그게 바로 아리우스파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속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사람이심을 가르친다. 바울은 이 사실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한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시다"(딤후 3:16).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기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딤후 2:5)가 되셨다.

마태복음 24:36에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곧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참된 인성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딤후 2:5).

by Wyatt Graham, TGC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발한인장로교회)

작은 야고보 (James the Less)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가 패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막15:40) 야고보는 수제자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배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치적 야망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실증주의자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야고보는 앞에 나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작은 야고보처럼 작은 야무개라는 별명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일하는 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작은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마 25:23)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큰 나무를 보셨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작은 겨자씨에서 천국을 보셨습니까.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큰 것을 작게 볼 수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작은 야고보를 주님이 보실 때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작은 야고보는 제자중 제일 미남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작은 야고보를 제자들 중에서 제일 미남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림 중에서 제일 미남을 고르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너무 좋아서 평생 주님 앞에서 조용히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작은 야고보처럼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큰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작은 야고보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제자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요란하지



않아도 항상 있어야할 자리에는 그림자처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업적이나 행적은 많이 찾을 수 없지만 삼복음서인 마태복음10장 3절과 마가복음 3장18절과 누가복음 6장15절에 작은 야고보가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많이 참견하되 큰 소리 치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는 없어도 말없이 복음을 위해 충성한 사람입니다. 겸허하게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아름다운 제자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작은 야고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힘들다고 다 떠나갈 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굉장한 일을 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꼭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별로 요란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도 됩니다. 별로 자랑할 만한 공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작은 야고보의 삶처럼 꼭 필요했던 제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작은 야고보는 시리아에 가서 전도하였고 시리아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야고보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 톱을 가지고 겸으로 장렬하게 순교하였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예수님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

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 53:2)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작은 야고보 같은 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장관으로 부르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마지막 추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부족하니까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서 쓰시려고요. 퍽퍽하고 잘 나고 차고 넘치는 사람은 부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낯익은 오감 같이 비천한 우리를 성령의 용광로에 넣어서 주님의 주발대접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배설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 3:8)

여러분은 작은 야고보와 같은 예수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제자 되기 위해 투자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실천 가능한 일을 실천하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어부 베드로의 투자와 세리 마태의 투자가 부럽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투자가 부럽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잘 투자하여 풍성하게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충성된 작은 야고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선택

하나님의 나라도 한 사람 아담으로 위협받았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위로받았던가! 목회 현장에도 마찬가지 같다. 사명자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도 한 사람의 거친 말로 위협받아 상처 난 가슴을 움켜쥐고 며칠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한 사람의 따뜻한 말로 위로받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 말이다. 그 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선택을 했다. 자아 중심적인 말을 하기로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다. 그들의 선택은 자유였으나 그 결과는 판이했다. 위협과 위로로!

삶에 위협을 주는 부류들을 탐색하다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다. 그것은 열등감이다. 모든 이는 살아가면서 겪은 경험으로 저마다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권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연약함을 뵈뚱한 가시로 마음에 숨기고 있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잠잠하게 있던 그 가시를 발동시켜 비난의 말로 험하게 찢러버리는 것으로 보였다. 유유상종이라고 꼭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이들 곁에는 비난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곤 한다. 그리고 그들 간의 타인에 대한 연약함을 자아 중심적인 말로 비난하며 부정의 담합을 하는데 이들은 그들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습관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다.

삶에 위로를 주는 한 부류의 공통점은 자존감이다. 돈이 많고 지식이 넓고 자존감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돈이 부족해도 지식이 넓고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존중하고 또 다른 이들도 그렇게 대하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언어 습관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위로와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사역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까 잠시 치기 어린 생각을 해 본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단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한 존재의 사고를 사로잡아 그 정서를 괴롭힌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고통 또한 이런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라 여긴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새해, 남은 열한 달을 건강하게 관계하는 방법은 없을까?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감정으로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 같다. 정말 쉽지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받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부정적인 기운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시간이 필수적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로 상처받은 마음은 또 다른 사람, 특히 배우자에게 뽀족하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자. 부정적인 생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고 건강하게 채울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쉬운 성경, 빌립보서 4:6, 8).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such as Dongbu (NY, NJ), New York, and Hawaii region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당신은 소중하다

작년 6월에 하버드대 의과대학 영안실 관리자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 일부를 빼돌려 애매했다고 한다. 이들이 4년간 몰래 시신을 판매하며

대략 3만 7천불 가량의 수익을 얻었는데, 그 꼬리가 잡힌 것이다. 이들은 시신을 분해하여 각각 얼마씩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판매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구입할 사람들을 영안실로 데려와서 구입할 시신을 직접 고르게 하기도 했더니,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사람을 그저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 한 명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계산해 보았다.

생물학자 돌프 빈더는 사람의 몸에서 17가지의 화학적 요소가 나오고, 그 각각에 가격을 매겨보면 불과 몇 불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헤모글로빈, 알부민, 인슐린 등 각종 호르몬 약품으로 사람의 가격을 매겨본다고 하면 약 600만불 정도 된다고 하고, 피부 조직과 신체의 온갖 장기가 매매되는 가격으로 계

산해보면 6천억 불 이상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인류 역사에는 사람에게 가격을 매겨 판매한 슬픈 역사가 있다. 바로 노예 거래이다. 할국 조선시대에 노비 한 명은 한 톤의 값보다 못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하며, 18세기 카리브해에서는 설탕 1톤을 주고 노예 한 명을 사왔다고 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람은 아마도 일본출신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아닐까 싶다. 그는 작년 12월에 엘에이 다저스와 10년 7억불에 계약을 맺었으니, 단순하게 계산해도 1년에 7천만불의 연봉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광고수익과 온갖 부가수익을 더하면, 그의 몸값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공 잘 던지고, 방망이로 공을 잘

때리는 데에 그런 엄청난 가격표를 붙이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프로스포츠는 커다란 산업이기 때문이다. 산업이면 비즈니스이니,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사람에게 더 비싼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비즈니스하지 않으신다. 교회도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마다 가격표를 붙이고 그에 따라서 더 비싼 사람이 되고자 기를 쓰고 노력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이지 않으신다. 가

격표는 사람이 붙일 뿐이지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누가 복음 21장에서 겨우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신을 싸구려 헌신이라 하지 않으시고,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귀한 헌신으로 보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안식일 해가 저물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치셨다. 한 명도 빠짐 없이 말이다. 우리 주님은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귀하다.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 주님의 눈빛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wmclakim@gmail.com

미주성시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기도회 연다

“불확실한 시대... 깨어있는 기독교인이 기도해야 할 때”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기도회를 오는 3월3일(주일) 오후 6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성회 강사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6일(화) 오전 11시 강남회관에서 열렸다.

송정명 목사는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47개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해이다. 2024년이 불확실한 시대라는 전망이 있다. 크리스천 입장에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이다. 4월에는 한국에 총선이 있고 미국대선이 11월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도움을 받고자 기도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진유철 목사는 “지구인구의 절반이상이 선거를 하는 해이다. 미주성시



미주성시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기도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

화운동본부를 비롯하여 깨어있는 기독교인이 기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마침 순복음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저희교회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희년감사예배를 드리며 미주한인들이 연합하여 기도회하면 좋겠다”며 “이영훈 목사님

은 한국교회 연합에 빠질 수 없는 분이이다. 2015년부터 한반도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어왔다. 미국에는 워싱턴 DC, 아틀란타, 하와이 등에서 기도회를 열어왔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한미가 연합하여 기도회를 하게 된다. 3월5일이 수퍼화요일

이다. 그때 미국 대선후보가 결정된다. 알맞는 시간에 이땅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15명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한기홍 목사, 강준민 목사, 김경진 목사 등 공동회장이 기도순서를 갖게 된다. 주지사, 시장, 의원, 기타 지역 주류사회 리더들은 영상과 글로 마음을 함께 하게 된다.

육세철 장로는 “어느 때보다 전쟁위험이 높은 해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시안 혐오범죄가 우려되어 노인들이 외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도회 다음날인 4일(월) 오후 7시30분에는 나성순복음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성회가 열리게 되며 5일(화) 오후 7시에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이지성 작가를 강사로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 문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게 된다. 자세한 것은 (213)663-2228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이훈구 장로가 강의하고 있다

“300점 자녀 양육 노하우” 공유 가정 세미나 강사 G2G 선교회 대표 이훈구 장로

G2G 선교회 대표 이훈구 장로는 2월4일 “300점 자녀 양육 노하우”를 공유하는 가정세미나를 4일(주일) 텍사스 남부 맥알렌 한인 교회(담임 권영배 목사)에서 한국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강사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했던 경험과 노하우들을 모아서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경제관, 교육, 결혼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훈구 장로는 자녀 경제관에서는 경제적 자립자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한 내용들을 다루었고 자녀 교육부문에서는 자녀 교육, 진로 결정에 무엇이 중요할까? 라는 질문을 청중들에게 하며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으며, 자녀 결혼 부분에서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위한 강사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나누었다. 이 장로는 300점 자녀의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경제적 자립자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자녀를 100점,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자녀를 100점, 마지막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손주들을 안겨주는 자녀를 10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전체 누적 합계가 300점이 되는 자녀가 될 때에 300점 자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책을 출간한 이훈구 장로는 두번째 책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20권을 했으며 이날 가정세미나를 마치고 사인회 행사도 가졌다. 이훈구 장로는 미국 휴스턴에서 신학공부를 하여서 목회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평신도로서 미국 비영리 제단인 G2G 선교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세미나를 요청은 g2gmission@hotmail.com로 문의하면 되고 대면과 온라인 강의도 가능하다.

(기사제공: G2G 선교회)



구세군나성교회 창립 43주년 축하 및 콘서트 개최

구세군 나성교회(담임 김정수 사관)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지난 1월 27일(일) 오후 3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창립 43주년 축하 및 New Year Concert를 개최했다. 이날 교회는 로스앤젤레스 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 유스그룹(LA Sinfonietta Youth Orchestra Group, 음악감독 김용재 지휘자)을 초청, 대중들이 좋아하는 클래식 곡들을 선사했다. 콘서트에서는 김용재 지휘자, 김용희 지휘자, 전창환 지휘자가 인도로 주니어 유스 오케스트라 그룹이 Ode to

Joy, Archaic Voices, Finlandia, Carmen, Hallelujah Chorus, Hunters of Avatar, Toy Symphony, Go West, Cumberland Cross, New York New York, Into the Storm 등을 연주했는데, 중간중간에 김용재 음악감독이 몇몇 곡들을 설명, 곡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공연 후에는 김정수 사관이 로스앤젤레스 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 유스그룹에 감사를 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본/사/방/문

LA 연방하원 출마하는 칼빈 리 후보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말씀을 잘 따라갈 때 지켜지는 것”

오는 3월5일(화) 치러지는 예비선거 한 달 내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은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본선거를 위해 유권자 표심을 모으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한인후보들이 출마표를 던졌는데 특별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 한인타운이 속해있는 34지역구에 도전하고 있는 칼빈 리 공화당 후보. 34지역구는 LA 한인타운, 웨스트레이크,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링컨하이츠, 보일하이츠, 그래스락, 이글락, 하이랜드파크 등이 속해있으며 등록된 유권자수는 60만이다. 34지역구의 현의원은 지미 고메즈 민주당 4선의원이다.

칼빈 리 후보는 “작년 8월 15일 광복절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여 6개월 정도 뛰어나왔다”며 “한 달 내로 다가오는 예비선거에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여 본선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텃밭이며 특히 LA한인타운이 속해있는 34지역구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당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칼빈 리 후보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우선 34지역구가 속해있는 LA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누구나 방문하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명성에 걸맞지 않게 매우

낙후된 도시입니다. 현 의원의 지미고메즈 의원의 의정활동의 결과물이 세계적인 도시를 살기 힘든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물가가 높습니다. 세금도 매우 비싼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낸 것만큼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범죄율은 어떻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하고있는 친동성애법과 낙태법,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시행하거나 준비중인 친동성애교육법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라 강력하게 지적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민자들이 많아져서 청교도정신이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정신은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지경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와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것이 인권이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말씀을 잘 따라갈 때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A에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CCC 순장으로서 신앙훈련을 잘 받았으며 하버드 법학 대학원에

서 협상학을 졸업한 칼빈 리 후보는 캘리포니아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말씀에 순종하는 주(State)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3월 예비선거에서 통과되어 11월 본선에 올라가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많은 분들이 투표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번 선거에서 지미고메즈 의원이 획득한 표는 6만 정도였습니다. 60만유권자중 10%를 얻어낸 것이죠. 예선은 본선에 비해 투표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6만 표 중 70%정도만 획득하면 본선거가 확정될 수 있다고 봐요. 4만표 정도가 필요합니다. 34지역구의 한인유권자수가 25만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5만 한인유권자들의 참여에 따라 1위로 본선에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선승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칼빈 리 후보는 한인들의 정치참여는 무조건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이민현대사에서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난 1992년에 발생한 4.29 LA



칼빈 리 후보

폭동입니다. 당시 한인유권자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한인유권자수가 20만 명 이상이었더라면 4.29폭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유권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인유권자등록이 지금보다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투표할 반드시 투표를 하여 정치인들이 한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놓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calvinvictory2024@gmail.com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관

바울신학대학원 설립 10주년 기념 신학 심포지움
 바울신학대학원(총장 김동수 박사)은 설립 10주년을 맞아 '개혁주의적 성경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2월 14일(수)부터 15일(목)까지 온라인(ZOOM)을 통해 신학 심포지움을 연다. 발제자는 현성환 박사(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박덕준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박형용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 김동수 박사(바울신학대학원 총장) 등이다.
 ▲문의: PAT admin 이메일: hagiopat@gmail.com

디딤돌, 2024년 봄학기 아카데미 평신도 리더십 교육원 등록
 디딤돌 아카데미 평신도 리더십 교육원(원장 양춘길 목사)은 2024년 봄학기 평신도 사역자 과정과 평신도 교육전도사 과정을 3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소명발견(양춘길 목사), 그룹대화법(이수일 박사), 구약파노라마(한동원 목사), 크리스찬 정체성(박길재 목사), 하나님의 선교(신태훈 목사), 교회론(윤명호 목사) 등이 개설된다. 등록비는 개인 100불, 부부 150불이며 교육전도사 과정 전액 장학금(섬기는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필수)을 지원한다.
 ▲문의: 서병용 사무처장 201-739-7733, 전윤호 총무 201-618-2262

뉴욕실버선교학교 2024 봄학기 개강
 뉴욕실버선교학교(회장 김재열 목사)는 제 37기 2024 봄학기 2월 26일(월)부터 4월 29일(월)까지 10주간 뉴욕셋세마네교회(시무 이지용 목사)에서 개최한다. 대상은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며 등록비는 100불이다.
 ▲문의: 김경열목사 917-963-9356, 이형근 장로 646-220-8222

뉴욕실버선교회, 튀르키예 지진 난민 선교 지원 기금 모금
 뉴욕실버선교회는 2월 28일(주일) 오후 4시 뉴욕센트럴교회(시무 김재열 목사)에서 튀르키예 지진 난민 선교 지원 기금 모금 연주회를 개최한다. 웰리스트 문태국, 피아노 노란캐시디-폴레라가 출연한다.
 ▲문의: 516-387-9940

한무리교회, 한국학교 - 2024년 봄학기 등록
 한무리교회(담임 박상돈 목사)는 한무리 한국학교를 3월 3일(주일)에 개강한다. 이에 2월 25일(주일)까지 등록을 받는다. 한 학기에 총 16주 수업으로 진행되며 등록비는 50불이다. 함께 등록하는 자녀에게는 할인혜택이 부여된다.
 ▲문의: 이명주 교장 201-334-6540

아름다운교회, 뉴욕지역 미자립 이민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생 모집
 아름다운교회(담임 이재광 목사)는 뉴욕지역 미자립 이민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지역 이민목회자 대학생 자녀이며 \$2,000씩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선정 기준은 가정의 재정 상황, 학업 성적, 교회 및 지역사회 참여, 가정형편, 자기소개 등으로 한다. 제출서류는 2022년 Tax Return, School Transcript, 주보(사진 또는 스캔), 에세이(제목: "목회자 자녀로 살아온 나의 삶")이고 신청양식은 <https://www.arumdaunchurch.org/pk-scholarship-application>이다. 신청마감은 2024년 2월 20일(화)까지이고 서류접수는 info@arumdaunchurch.org로 하면 된다.
 ▲문의: 윤도현 전도사(아름다운교회 행정실) 516-349-5559 ext. 107



디모데목회훈련원, 2024 뉴저지 목회자 세미나 사진 촬영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기에서 본 목회자의 상” 디모데목회훈련원, 2024 뉴저지 목회자 세미나

디모데목회훈련원(원장 이용걸 목사)은 동부지역 목회자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 교회지도자들을 위한 '뉴저지 목회자 세미나'를 1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뉴저지동산교회(담임 윤명호 목사)에서 개최했다. 본 세미나에서 이용걸 목사는 말씀을 통해 목회 경험을 전하는 '바울의 목회' '레위기에서 본 목회자' '설교작성과 전달' 등의 주제로 강의했으며 정승환 목사(영생장로교회 담임)는 '후임자의 자세'에 대해 강의했다. 이 외에도 평신도가 바라는 목회자(박종교 장로), 효과적인 전도(우장환 장로), 팬데믹 이후 목회와 부목사와의 관계(윤명호 목사)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둘째 날 이용걸 목사는 '레위기에서 본 목회자'라는 주제의 강의 중에서 "목사의 사명을 첫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둘째,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섬겨야 한다. 셋째, 목사는 교인들을 축복해 주어야 한다. 교인이 떠날 때도 항상 축복하며

부족한 사람 밑에서 신앙 생활하는데 힘들었다고 위로하며 보내야 한다"고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기에서 본 목회자의 상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레위기 22장의 10장에서 10장은 죄악이 들어야 되는 책이고 특히 8장에서 10장은 죄악이 들어야 바랍다"고 권했다. 정승환 목사(영생장로교회 담임)는 후임의 자세에 대해 "첫째, 섬기는 교회의 영적인 DNA를 존중하고 배워야 한다. 둘째, 눈물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셋째, 목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일대 목사의 목회를 인위적으로 바꾸려하기 보다는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디모데목회훈련원 주최 목회자세미나는 2월 19일(월)부터 20일(화)까지 열바이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3월 4일(월)부터 5일(화)까지 버지니아 코이노스영생장로교회(담임 오건 목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홍현숙 기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는 새해’ KAPC 가든노회 2024년 신년하례예배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노회장 허상회 목사)는 2024년 신년하례예배를 1월 30일(화) 오전 11시 뉴욕양무리장로교회(담임 이준성 목사)에서 열었다. 노회장 허상회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신년하례예배는 기도 조성훈 목사(전 노회장), 설교 허상회 목사(노회장), 축도 이원호 목사, 광고 김지희 목사(서기)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상회 목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는 새해 (에스라 7:6-10)'라는 제목을 통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 행하며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하기 바란다. 이 결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감동시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또한 에스라는 말씀에 능동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라고 설교했다.

이어진 통성기도는 미국의 각성과 대선을 위하여(김지희 목사), 조국의 교회와 총선을 위하여(이종식 목사),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박정은 목사), 총회와 노회와 지교회를 위하여(허상회 목사) 합심으로 기도했다. 가든노회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신년 덕담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조성훈 목사는 "교회와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이종식 목사는 "2024년에는 가정의 평화와 교회의 부흥"을 기원했다. 이원호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삶"을 소망했으며, 김지희 목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내이다. 올해는 어디서든지 인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 목사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영적 성장"을 희망했으며, 허상회 목사는 "큰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2024년을 기대하며 축복한다"고 전했다.
 (홍현숙 기자)



KAPC 가든노회 2024년 신년하례예배 사진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밴쿠버 캠퍼스 개교 및 입학식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의 지역 신학교인 RPUS(Reformed & Presbyterian University and Seminary), 개혁장로회 대학 및 신학대학원의 <밴쿠버 캠퍼스>가 지난 1월 29일 월요일 썬리에 위치한 밴쿠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개교 및 입학식을 열었다. 이번 개교 및 입학식에는 학장 천성덕 목사, 학감 유재일 목사, 총무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이사장, 자문위원과 노회원들 및 축하객, 그리고 신입생 8명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교단은 현재 1300여명의 목사회원과 30개 이상의 노회, 650여개의 지역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으로서 이번에 개교한

KAPC RPUS Vancouver Campus는 KAPC 교단 지역 신학교의 밴쿠버 캠퍼스로서 서부 캐나다 지역에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세워진 KAPC 교단 신학교이다. RPUS 밴쿠버 캠퍼스의 특징은 우수한 본교 교수진들을 밴쿠버에서 직접 대면 강의 또는 영상회의식으로 수강할 수 있는 우수한 개혁주의 신학교육이 진행되며, 본 캠퍼스 M.Div 졸업생에게는 타신학교 졸업생과는 달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사제공: KAPC 지역신학교 밴쿠버 캠퍼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 박진하 목사 추대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2024년 첫 월례회이자 정기총회를 1월 31일(수) 오전에 퀸즈침례교회(박진하 목사)에서 열었다. 1부 예배는 육민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김인한 장로가 기도했다. 최창섭 목사는 "저 떡을 물위에 던지어라(전도서 11:1-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주어도 또 주며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받는 일에 익숙해있다. 받기만 더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 나누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전했다. 한필상 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가 진행되어, 기아대책과 선교지 그리고 후원아동 및 후

원자를 놓고 뜨거운 합심기도를 인도해 나갔다. 이어 전희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총회에서 이미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한 박진하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2년간 회장으로 섬겼던 박이스라엘 목사는 사역보고를 통해 지난 회기의 사역과 변화를 소개했다. 총회는 회장 박이스라엘의 기도도 진행됐으며, 이종명 목사가 개회기도를 했다. 유원정 사모의 행정보고, 전희수 목사의 감사보고, 한준희 목사의 회계보고가 진행됐다. 기아대책은 현재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109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비는 아동 1명당 한 달에 30달러다.
 (정리: 김재상 기자)



2024 제직수련회를 마치고, 강사 이용걸 목사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퀸즈장로교회, 2024 제직수련회 이용걸 목사, "변화된 삶"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월 2일(금)부터 2월 4일(주일)까지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로 이용걸 목사(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 필라 영생장로교회 원로)를 초청하여 2024년 제직수련회를 열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집회에서 이용걸 목사는 토요 새벽기도회를 포함하여 총 6번의 집회 가운데 말씀을 전했다. 이번 집회에는 퀸즈장로교회 중국어권과 러시아어권 성도들과 제직들과 집회에 함께 참여했다.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 이용걸 목사는 "바른 삶(창 47:1-12)"를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비록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할지라도 인생의 후반전만큼은 하나님에 원하시는 삶을 꼭 살아서 역전하게 된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다윗은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였고,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으므로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역전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을 드러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둘째 날 새벽 "찬양의 삶(시 68:19)", 둘째 날 저녁 "성화의 삶(골 4:1-12)", 주일 1부 "마음의 주인(엡 3:14-19)", 2부 "하나님의 은혜(출 19:1-6)", 3부 "성숙한 신자(엡 4:13-16)"를 주제로 2024년 새해를 이끌어갈 제직들과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김재상 기자)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밴쿠버캠퍼스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허태균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갈등을 해소하는 관계회복 세미나 허태균 교수...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

갈등을 해소하는 관계회복 세미나가 유스타파운데이션(대표 박소연) 주최로 3일(토) 오후 6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본세미나는 박소연 대표의 인사와 박성근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이번 세미나는 허태균 교수(고려대학교)가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허태균 교수는 "대한민국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다"며 "한인들은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열려가 많다. 하지만 세대간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세대간 갈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선호한다. 그것은 한국인들은 관계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양사람들의 시각에서 한국인들은 일관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한국인들 입장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 역동적인 것이며 그것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아프리카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단시간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 말했다. 또한 허 교수는 "한국인들은 잘하는 것은 많은데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특징은 산업화 시

대 평생직장개념에 있었던 환경에서는 장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개인주의자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인주의가 되려면 소신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은 자녀양육을 할 때에도 그들의 미래까지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니다. 결혼이 어려워지고 저출산국가가 되는 것은 자녀들의 삶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희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라 지적했다.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지난 2014년 고 박상균 대표가 세상을 밝게 빛내고자 '나눔을 전파'하는 이들과 함께 모여 '현재진행형'으로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는 자발적 후원 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이다. 2018년부터는 정신건강 힐링단체로서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눔은 전파다'라는 명제 아래 온오프라인 힐링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내버리브업(Never Give Up)' 힐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 박상균 대표가 심장마비로 삶을 마감했으며 그의 아내인 박소연 JILK CPA가 대표를 맡고 있다.

(박준호 기자)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임직자 취임 및 은퇴감사예배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임직자 취임 및 은퇴감사예배

북가주에 있는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담임 권혁인 목사)는 장로, 권사 취임 및 은퇴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달 14일에 열린 예배에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가주한인연합감리교회(코리언코커스) 회장인 한인희 목사(상환한국인연합감리교회)의 집례로 개최되었다. 이강원 목사(예수사랑교회)의 기도, 장학순 목사(연합감리교회 한인회회장)의 협의회 사무총장의 설교, 권혁인 담임목사의 집례로 열린 취임식 문답 및 안수, 홍삼열 감리사(이 교회 직전 담임목사)의 축사, 정현섭 목사(오렌지연합감리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고후 12:9-10)'이란 제목으로 설교에 나선 장학순 목사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있는 자보다 나약하지만 충성스러운 자를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며 "임직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교회

를 정성을 다해 섬기는 믿음의 일꾼이 되라"고 전했다. 이어 홍삼열 감리사(엘카미노 지방)의 축사가 있었으며 교회 연합 찬양대의 특별찬양과 피아노 김혜신, 비올라 심정현의 '나의 찬미'란 특별연주 순서도 있었다. 한편 권혁인 담임목사는 이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늘 많은 직분자를 세우게 된 것은 공동체의 기쁨이자 환영할 일"이라면서 취임 혹은 은퇴하는 이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은퇴장로: 김영일, 박인식, ▷은퇴권사: 황영순 △취임장로: 김영목, 김유동, 반병기, 오동화, 조재주, 주기모 △취임권사: 고윤학, 김경석(Eric), 김영자, 김영철, 김용철, 김애우, 김지원, 박동해, 박동원, 박민호, 반은희, 배순옥, 변기성, 오미숙, 여현수, 이은숙, 이은영, 이현경, 전해정, 정민경, 정옥인, 허범석, 허정학, 홍예경

(정리: 박준호 기자)

'희망친구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 LA방문 기아대책 비전 - '공동체 자립'

한국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전 한국 오라클 대표이사 사장)이 LA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일(금) 샌디에고갈보리교회(김도일 목사)와 4일(주일)에 LA한미교회(홍충수 목사)와 로렌스한목자교회(이승혁 목사)에서 열렸던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하는 찬양간증집회 'The Calling Concert'를 위해 방문했다. 기아대책은 지난 31일 오전 11시 옥스퍼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원식 회장은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 구호단체들이 있는데 기아대책의 특징은 직원들이 100% 세례교인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전 세계에서 기아대책 이름으로 활동하는 현장 사역자들은 모두 기아대책에서 파송한 NGO 선교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아대책의 존재의 이유는 선교적인 구호개발단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세상에 영적, 육체적 굶주림의 종식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유원식 회장은 "기아대책의 사업은 분산형이다. 타 구호단체는 사업 형태가 집중형이라 후원금이 본부로 들어가게 되며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구호현장으로 보내진다. 하지만 기아대책은 분산형 사업구조라 후원금이 선교현장으로 모두 보내지기에 간접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미주의 경우 파송한 13개 가정 선교사에게 직접 후원금이 전달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수혜자에게 후원금이 가장 잘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본부에서 현장으로 지원금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기아대책은 공동체 자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며 "마을공동체의 자립을 목표로 아동결연을 위시하여 학교세우기, 교회세우기, 우물파기 등 하드웨어 지원은 물론 부모들을 위해 금융교육, 보건위생교육 등 소프트웨어교육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해당지역에 15-20년 플랜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며 "과거 선교개념은 빼를 묻겠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현지인들에게 사역이 전적으로 맡겨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인들 스스로 자립하는 모델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찬양간증집회엔 유원식 회장(전 한국 오라클 대표이사 사장)과 CCM 가수유은성 전도사와 그의 아내인 배우 김정화(SBS 동상이몽 2 출연, 기아대책 홍보대사)가 참여했다. 기아대책 후원문의는 (703)473-4696(미주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정승호 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사무총장, 유원식 한국 기아대책 회장, 이세호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부회장



포틀랜드영락교회 창립60주년 감사예배에서 박성하 담임목사(사진 오른쪽)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포틀랜드영락교회 창립60주년 감사예배

"앞으로의 시간은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는 시간 될 것"

포틀랜드영락교회(담임 박성하 목사, 이하 영락교회) 창립 60주년 감사예배가 4일(주일) 오전 11시에 거행됐다. 박성하 목사는 "영락교회는 1964년 김관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심으로 시작된 교회이다. 본 교회는 포틀랜드에 이민 온 많은 한인들을 품는 일을 이루어나갔으며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다. 그 구원의 대상을 확장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선교적 사명을 이어오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지난 60년이 하나님의 꿈을 시작한 시간들이라면 앞으로 60년은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영락교회를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꿈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줄 믿는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0주년 기념영상 상영과 찬양팀의 경배와찬양으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이종기 장로가 기도했으며 아동부, 엘리웃장로성가단이 특송했다. 이날 박성

하 목사가 '꿈은 이루어집니다(행 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60주년 축하영상이 상영되었으며 4대 담임 진영길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이어 포틀랜드영락교회 초창기 도움을 받았던 프랜즈처치(집 르 사나 목사)에 감사패와 선교헌금을 전달했다. 이날 예배는 박성하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모금된 헌금 중 2만 달러는 콜롬비아의 기독교학교 설립을 위해, 그리고 영락유치원 건립을 위한 시드머니로 사용된다. 박성하 목사는 "오랫동안 비전으로 영락유치원이 2025년 4월 드림 크리스천프리스쿨이라는 이름으로 개교 한다"며 "우리 자녀들이 요셉, 다윗,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교육하고 가르치고자 한다.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목표는 아메리칸드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그 목적으로 세워지는 드림크리스천프리스쿨을 위해 기도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사랑의교회 G2G 비전예배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G2G 비전예배가 9일(금) 오후 7시 30분에 'The Gift'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Marc Choi 목사 (뉴저지온누리교회 담임)이며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In & Out 푸드트레이 준비된다. ▲ 문의: (714)772-7777

버클리시온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버클리시온장로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이거나 교단가입이 가능한 정규신학대학원(M.Div.) 이상 학위를 받은 10년이상 목회경력(부교역자 기간 포함)을 가진 자이며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자이다. 제출서류는 자필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추천서 2통(추천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 목회비전 및 목회계획서, 가족소개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족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설교동영상 2편, 신앙고백서이다. ▲ 문의: (510)912-1955

시드선교회 선교사 모집

시드선교회는 2024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학교를 오는 4월1일부터 5월9일까지 캐나다밴쿠버에 위치한 ICTC훈련원에서 갖는다. 시드선교회에 가입하기 원하는 청년 선교현신자,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를 대상으로 여는 이번 선교사학교 입학 비용은 \$1,500(7세 이상 자녀 \$1,000)이며 숙식이 제공된다. ▲ 문의: (562)926-4700(미국), (604)889-5800(캐나다)

베델교회 춘계 부흥회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춘계부흥회가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이용걸 목사(영생장로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된다. 일정은 2월 16일(금) 저녁 7시 30분, 17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이다. ▲ 문의: (949)854-4010

주님의영광교회 황성은 목사 초청 부흥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황성은 목사(오메가교회 담임) 초청 부흥회를 '교회는 이긴다'라는 주제로 17일(토)과 18일(주일) 개최한다. 일정은 17일(토) 오후 7시30분, 18일(주일) 오전 8시-, 10시30분, 오후 1시30분 ▲ 문의: (213)749-4500

선한청지기교회 2024 봄 청지기 말씀축제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2024 봄 청지기 말씀축제를 '성령이여, 새일을 행하소서(행 2:1-4)'라는 주제로 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말씀축제는 미셔널처치 컨퍼런스로 열리며 강사는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담임), 일정은 9일(금) 오후 8시, 10일(토) 오전 6시, 오후 8시, 11일(주일) 1-3부 예배이다. ▲ 문의: (626)913-661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식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담임 이육주 목사)는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18일(주일) 오전 11시에 갖는다. 이날 박성진 목사(나성장로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한다. ▲ 문의: (702)749-9929

피종진 목사 2월 부흥성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목) 저녁 2(금)~ 3(토)	인천 불면등산교회(김영준 목사) 010-3721-4316 천안 위대한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254-0691 주최 : 솔로몬 지도자 협의회	
6(화) 저녁	대구 주강교회(조예림 목사) 010-8908-1487 주최 : 그루터기 부흥사회(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7(수) 오후 8(목) 9(금)~10(토)	송추 반석기도원(원장 고관용 목사) 010-2391-3004 서울 강남순종교회(오승준 목사) 010-3942-8434 창원 은혜교회(피은혜 목사) 010-4586-8642 / 행정 김반석 목사 010-2083-8644	
11(주) 오후 15(목) 오후 16(금) 오전	김포 감림교회(조경숙 목사) 010-8222-1992 서울기독교교육연구원(김규민 목사) 010-4242-5022 한국기독교회관 1308 주최 : 민족복음화운동협의회 (대표총재 우광순 목사, 대표회장 박민복 목사, 총비위원장 임동철 목사) 010-7407-9958	
17(토) 오전 18(주일) 저녁 19(월) 오전 19(월) 오후 20(화) 오후 20(화) 오후 21(수) 저녁	구리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870-5642 대전 북부제일교회(김재홍 목사) 010-9068-9197 국제선학교(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테트메이커선교회 강남센터 3층(대표회장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용인 비전캠퍼스 기도성회(김사방 목사) 010-3621-3383 신세기한강빌딩 5층 군산 아름다운교회(최영광 목사) 010-2953-2996 주최 : 그루터기 부흥사회(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서울 강남반석기도원(김사방 목사) 010-8331-3431 서울 은진침례교회(최영준 목사) 010-2252-0675	
23(금) 저녁 24(토) 오전	제236차 해외성회(236th Overseas Assembly)	
25(주일) 밤 26(월) 27(화) 28(수) 29(목)	솔로몬 필리핀(Philippines) 중부 루손지역 원주민목회자세미나(대회장 윤상오 선교사) 필리핀(Philippines) 클락지역 원주민성회 필리핀(Philippines) 루손지역 교회설립(개척) 성회 미국	www.nasca.or.kr www.nasca.or.kr Tel. 02)3411-9191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떡국 받아든 노숙인 사이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들렸다

시온세계선교교회, 대한노인회 중앙회

시온세계선교교회, 대한노인회는 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설맞이 떡국 나눔 봉사'를 개최했다. 떡국 500

인 분을 노숙인, 쪽방촌 어르신께 대접했다. 제공된 떡국은 양과 질에서 시중의 어떤 것보다 나왔다. 무엇보다 음식을 제공하는 이들의 정성이 듬뿍 들어

있었다. 떡국을 받아든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간간히 '할렐루야' 소리가 들렸다. 신현옥 시온세계선교교회 목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신 목사는 "만나는 분께 웃으며 먼저 인사하고 작은 사랑을 건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축하의 말을 전했다.

행사는 판다하나봉사단(총재 김민석), 시온세계선교교회(신현옥 목사)가 주최했다.

판다하나봉사단 김민석 총재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역 다음교회와 쉼표다운 사람들, 세계봉사연맹이 주관했다.



무대 뒤집어놓은 소향이 던진 뼈 때리는 조언 '세 가지'

"성실·실력 갖춰야" "한국교회 다음세대 위해 투자하길"

4일 오후 경기도 광주 외곽에 자리잡은 광림 수도원. 각 분야의 기독교 음악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인 '2024 아티스트 개더링' 무대에 여가수가 등장하자마자 객석이 환호와 박수로 들쭉였다.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 '천상의 목소리' 등의 수석을 얻으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보컬리스트 소향이었다. 그는 2박 3일 동안 다섯 차례 진행되는 '아티스트 개더링' 콘서트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나섰다.

소향은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쓰임 받는 자'의 덕목을 언급하며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에게 성실함과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하는 '송캠프'에 가던 비기독교인 아티

스트들이 곡 작업을 위해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며 "민족의 운명을 걸고 골리앗과 맞서던 다윗의 몸뚱이 던지는 연습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설교했다. 그러면서 "은혜로 들 어달라"는 말로 부족한 실력을 덮으려 하지 말고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작곡, 가장 등에서 뛰어난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향은 최근 디지털 싱글 '블레싱(blessing)'을 발매하며 힘찬 장르에 도전장을 냈다. 크리스천 배우이자 래퍼로 활동 중인 양동근(YDG)이 피쳐링으로 참여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처럼 다가올 희망을 노래한 곡이다. 테일러 스위프트, 폴다 플레이 등 세계적 가수들과 작업한 엔지니어와 함께 앨범을

준비했던 과정도 소개했다. 핵심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샤넬, 에르메스 매장에서 명품백을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주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치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된 이유입니다. 세상의 문화 트렌드를 읽는 것과 함께 크리스천으로서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한 균형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향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로서의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과 친해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과 수다 떠는 기도시간, 하루 몇 장이라도 성경 읽는 시간을 확보해보라"고 권면했다.

한국교회를 향한 쓴 소리도 남겼다. 다음 세대 아티스트와 청년들을 위해서다. 그는 "교회에서 음악과 문화 콘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에 청년들을 이용만 하려하지 말아달라"며 "교회가 지금의 장년세대에서 끝나갈 원치 않는다면 예비 장년세대인 다음세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향은 '유 레이스미 업'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열창하며 크리스천 아티스트들과 호흡했다. 그는 소명자로서의 길을 선택한 아티스트들을 위한 독려를 남기며 무대를 내려왔다.



슬기로운 목회자의 생성형 AI 사용 방법은?

미목연 '목회자를 위한 생성형 AI 강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목회 영역까지 넘어오면서 목회자들의 활용 방법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비롯해 학습데이터 오염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생성형 AI를 설교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 교차 검증 등 목회자 윤리 지침 준수를 강조하면서 답러닝(컴퓨터가 사물을 분류하도록 훈련시키는 기계학습)을 위해 사용자의 명령어인 '프롬프트'의 세부설정을 당부했다.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미목연·이사장 김지철 목사)은 지

난 5일 '목회자를 위한 생성형 AI 강의'를 마련했다. 강사로 나선 조성실 소망교회 부목사는 '챗GPT를 설교 준비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윤리 고려사항과 복음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조 목사는 가장 먼저 챗GPT 세부설정을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자신의 프로필을 기술할 수 있는 칸(Custom instructions)이 있는데 그곳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사는 무엇인지' 등을 기재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용이하다는 것이 조 목사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프롬

프트 입력을 위해서는 '역할 설정' '내용과 요청사항' '글의 톤과 매너' '출력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이를테면 신학자 관점에서의 설교를 준비한다면 챗GPT에게 '성경 연구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하고 글 주제와 설교 본문·구절·역분 등을 제시해 대화하듯 요청하는 방식이다.

챗GPT는 이 같은 요청에 "해당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아들이 사를 번제로 드리러 가는 이야기"라며 "하나님의 시험에 부딪히도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든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생성형 AI가 신앙을 위한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목연은 '교회를 위한 생성형 AI 기술 사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의 상황 속에서 책임감 있게 또 윤리적으로 AI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가 내놓는 결과물은 기도 없이 나온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설교와 가르침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조명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아 살리는 일은 모두의 몫, 생명 존중 문화부터"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콘퍼런스 성료

낙태 종식을 위한 국제 기도 운동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40 Days for Life)'의 콘퍼런스가 최근 이탈리아 로마 웨라톤 호텔에서 성료했다. 각 나라와 지역의 낙태를 종식하기 위해 기도하며 결의를 다지는 행사로 전 세계 25개국 20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태아 생명존중단체 '아름다운피켓' 대표이자 '생명을 위한 40일 기

도' 한국 본부 개신교 대표인 서윤화 목사가 참여했다. 2박 3일간 진행된 콘퍼런스에서는 올해의 프로라이프 운동가들 선정·시상할 뿐 아니라 낙태클리닉 인근에서 침묵 기도를 하거나 구속된 여성 프로라이프 운동가 이사벨 본스프루스, 생명윤리 및 유전학 등 국제 강사인 필라르 칼바 박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강연이 진행됐다. 서 목사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낙태의 2/3가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 크리스천 비율이 높은 한국조차 태아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없이 죽어가는 태아를 살리는 일은 특정 단체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모두의 몫"이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더 낳기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생명 경시 문화를 생명 존중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며 낙태 종식을 위한 기도 운동을 강조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2004년 미국 텍사스주의 한 낙태클리닉 앞에서 40일간 위기 임신 여성들을 만나 상담과 직접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세계 65개국 백만여명의 기도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도 운동을 통해 2만여명 아기를 낙태로부터 구조했다. 이런 활동은 영화 '언플랜드'에서도 알려졌다.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3) 657-7576, Fax: (703)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회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화장기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38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찬양예배: 오전 10:00 영 아 베: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5:3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영 아 베: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608) 435-4579, www.bostona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초.중.고 대학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65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Little Rock,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706 Wilmer Rd. Hershman,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리본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254) 6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laccn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mission 선교의 창 (231)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부담

우리는 거리를 지나치면서 아름다운 예배당들을 많이 목격한다. 유럽의 교회당들이 예술적이거나 미국의 교회당들은 목가적이다. 넓은 대지 위에 파란 잔디 마당을 낀 교회는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쓸쓸한 경우가 많다. 족히 500명은 앉을 좌석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 몇 명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나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참여 숫자와 구성비율도 문제제기와 어떤 교회는 예배 중심보다 1세대들의 친목회처럼 느껴지는 곳도 있다. 신앙심이 특 심인 한인교회는 어떠한가? 점차 서구 교회의 양태를 닮아가고 있다. 자녀 세대가 없는 교회는 속이 빈 고목나무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나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교회도 생물체처럼 수명이 있는 것일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현상을 냉정히 진단하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대부분의 교회들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정보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포함한 젊은이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만 갔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 실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국의 크리스천 월드 모니터지(The Christian World Monitor)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50% 이상이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형교회는 더욱 심각하다. 한인교회 주일학교는 현재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한다. 2030년에는 교회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아무튼 짐 실은 수레가 내리막길로 달려 내려가듯 한인교회 쇠락의 가속도는 눈으로 보이고 체감할 정도이다. 통탄할 일이다.

없다. 이 논리로 본다면 옛날은 지금보다 좋았던 말인가? 아니다. 어린이 신앙교육에 대한 교회의 관심, 담당교사들의 역량, 교육환경, 시대적인 배경 등 모든 면에서 더 형편없었다. 그러함에도 교회는 부흥했고 어린이 주일학교는 성황

발명왕 에디슨은 "천재는 99% 노력과 1%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의 말에서 핵심은 노력보다 영감이다. 무슨 일이든 진단과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그 수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 차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전수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간 해왔던 전통적 방법으로는 이미 한계성에 도달했다. 표피적이고 알파한 교육 수단으로는 2세대들의 심금을 울릴 수 없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현교수는 말한다. "이는 단순한 교육으로 될 일이 아니다. 선교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타문화권 선교는 하지 않았지만 자녀세대를 향한 수직선교에 목숨을 걸고 있다. 결과 그들은 외세의 그 모진 핍박에도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세계에 지대한 영향

따라서 우리 기독교회는 수평선교를 지속하되 수직선교도 같은 수준에서 병행해야 한다." 맞는 말이다. 우리 한인교회가 죽으면 선교도 죽게 된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은 서구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다.

4. 신앙전수의 좋은 모델

1세대인 부모는 2세대인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가? 재산이 아니다. 신앙이다. 신앙이 없는 자에게 재산은 독이 될 수 있다. 신앙은 당대의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기 두 가문을 대비한 극명한 실화가 있다. 사회학자이자 뉴욕 주 형무소 위원이었던 리처드 덕데일(Richard Dugdale)은 1875년에 "जू크 가문의 유전적 전통"

죄자, 310명의 극빈자, 400명이 부주의로 신체장애자가 되었다. 맥스 쥬크의 자손들은 뉴욕주에 \$1,250,000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 이에 반해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가 있었다. 그는 1703년 출생했으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는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 그의 후손 가운데는 1명의 부통령,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30명의 법관, 65명의 교수, 80명의 고급 공무원, 100명의 변호사, 100명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나왔다.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리 다를 수 있단 말인가?

맺음 말

전 세계 5만여 한인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1세대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야 할 2세대가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위기감을 너도나도 쉽게 토로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송고한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간 간과했던 구약의 지상명령을 새롭게 인식하고 연구해 우리 것으로 소화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수직선교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되고 필경 세계의 한인교회들도 화석처럼 건물만 남고 말 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불행의 대명사 격인 맥스 쥬크(Max Jukes)의 가문을 흠모하지 않는다. 모두가 명예로운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2. 문제의 진단

일반적으로 교회학교 전문가들은 자녀세대의 신앙적 위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차세대의 신앙 실태

대한민국 어린이 교회학교는 1922년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조직되면서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1930~45년 일제의 탄압으로 교회가 위기를 맞으면서 교회학교도 위축됐다. 6·25 이후 주일학교는 다시 부흥의 길로 돌아서 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도약하며 발전했다. 이 시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후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여세를 한 때 한국교회는 12.5%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출산을 저하에 따른 자연적인 인구 감소,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의 문명의 이기가 낳은 유희, 육신을 즐기는 쾌락 문화, 날로 다양해지는 욕구 불 충족, 교회 지도자의 무관심, 주일학교 교육 담당자의 역량 부족, 진부한 교육방식, 열악한 교육환경, 한국교회의 신뢰도 감소, COVID 19로 인한 교회 환경의 변화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할 수

을 이루었다. 사실 지금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개발된 각종 교육자재, 담당자들의 자질, 쾌적한 환경 등은 30년 전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나아졌다. 그렇다면 근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현용수 박사는 유대인 교육신학에서 찾았다.

3.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력을 끼쳐 왔다. 성경에 두개의 지상명령이 있다. 신약은 마 28:19-20이며 구약에는 창 18:19& 신 6:4-9이다. 유대인은 구약의 지상명령에 충신했고 기독교 교회는 신약의 지상명령에 충신했다. 결과 유대인은 4,200년 동안 자자손손 신앙을 대물림 했고 기독교회는 오대양 육대륙에 선교사를 보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신약의 교회는 단명하며 자녀세대를 신앙적으로 잃어 버렸다.

이란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42명의 성씨가 다른 죄수들이 "맥스(Max)라는 사람의 후손임을 발견하였다. 맥스 쥬크(Max Jukes)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720년에 태어난 그는 신앙이 없었으며 교육도 받지 않았고 알코올 중독자이며 무직이었다. 불행은 그로 끝나지 않았다. 불명예스럽게도 그의 후손 가운데는 7명의 살인자, 60명의 도둑, 50명의 창녀, 130명의 범

Edwards)같은 가문을 원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지금 우리 1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세대의 미래가 달려 있다. 당대에 쥬크나 에드워드는 각각 1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씨가 후대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Jrsong007@hanmail.net

속이 빈 고목나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없는 교회는 속이 빈 고목나무와 같다. 1세대의 신앙이 2세대로 전수 되지 않는 한 교회의 미래는 없다.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0강 라합, 요단, 기념돌 그리고 여리고 (4) (여호수아 1-9장)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을 제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수 8:1)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 성은 가나안 첫 성이 아니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가질 수도 있고 비록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수 8:2).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대로 전쟁을 하여 승리를 합니다(수 8:3-29). 모세의 안수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는(신

34:9)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수 8:27).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고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 산과 에발 산에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수 8:28-35).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군을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깁니다. 소년이 나가도 이기고(삼상 17:33,50,51) 어디를 가든 이

기고(삼하 8:6,14)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전멸을 시키시기도 합니다(왕하 19:35).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적군의 손에 '넘기시고'(사 6:1, 13:1) '떨어버리실' 것입니다(사 3:8, 4:2, 10:7).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죄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라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는 상황에 기브온 주민들을 만났습니다(수 9:1-6). 다른 나라 왕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 줄 알고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수 9:7) 그들이 보여준 '곰팡이 난 떡'과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납아버린 옷과 신'을 보고는 조약을 맺고 족장들이 맹세도 합니다(수 9:8-15).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았지만 이미 족장들이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없

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와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때며 물을 길는 자들이 됩니다(수 9:16-27).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수 9:14). 이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무가 될 것입니다(출 34:12/ 신 12:30/ 수 23:13/ 삼하 21:1-14).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

워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도 요단을 건너도 여전히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 할 수 없습니다. Up and down을 반복할 것이 고 마침내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범죄하지 않아야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소견을 앞세워던 백성들의 이야기 그럼에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다윗의 감사제 (시56:1-13) 찬 169장

감사의 시편인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까?(12) 첫째, 고난당할 때 감사가 생겼습니다.(1-7) 블레셋에게 잡혀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원수가 종일 삼키려고 했고(2) 공격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매우 악하여(5) 은밀한 모의를 통한 무자비함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 고난은 감사를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둘째, 기도할 때 얻었습니다.(9) 고난의 시간에 그

는 자기 사정을 그대로 아뢰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눈물을 계수하기를 바랄 정도로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겨진 열매입니다.(13) 고난에서 구원받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곧, 생명의 빛 아래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구렁이에서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였습니다. 감사 제물의 삶을 살아갑니다.(롬 12:1-2)

화 새벽에 바쳐진 제물 (시57:1-11) 찬 361장

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본문에서 우리는 새벽에 바쳐진 제물이 되는 삶을 배웁니다. 첫째, 왜 새벽에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그가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만 상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둘째, 새벽에 무엇을 했습니까? 영혼을 깨웠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영혼이란 뜻입니다. 새벽

은 우리 영혼이 인자와 진리의 양식을 먹는 적절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작정이었습니다.(7) 누구든지 새벽 제물이 되기로 결심한다면 주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계시의 빛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풍성히 받고 새 힘을 얻어, 새 노래 부르며, 새 역사를 이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영혼의 등불을 항상 밝히는 일에 힘씁시다.

수 다윗의 확신 (시 62:1-12) 찬 340장

확신 시편 중 하나로 알려진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첫째,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임을 확신했습니다.(2) 반석, 구원, 요새, 피난처로 확신한 시인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사야(사 6:5)나 베드로(눅 5:8)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배운 공통된 확신이 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눈이 뜨여져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진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임김같은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9)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다윗은 인생이란 수에 질 가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속임

수와 같은 인생임을 안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주께 토설한 것입니다.(8) 큰 확신은 자신의 부패함을 아는 그릇에 담겨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확신입니다. 셋째, 그는 참 능력은 하나님뿐이심을 알았습니다.(11) 하나님과 자신을 바로 안 다윗은 실생활의 모든 능력이 그 분에게 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년 때 깨달은 진리(삼상17:45)가 고난 속에서도 더 깊이 배워진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의 주되심을 오늘도 인정합니다.

목 밤의 노래 (시77:1-20) 찬 403장

아삼 시인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회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현실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1) 그는 밤에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첫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 많은 고난을 당한 그는 주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복됩니다. 그에게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괴로웠습니다.(6-9) 그는 과거의 영적 고통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

다.(8-9) 사랑과 은혜와 공물이 그치고, 언약이 폐지되는 생각을 하며 괴로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의 심령은 가난하며 애통하며 은유한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찢는 자는 놀라운 치료를 받습니다. 셋째, 주께로 오는 능력을 사모했습니다.(14) 이 은혜는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며 지금도 간구의 음성을 듣고 환난에서 구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영혼의 밤에 신령한 노래를 배웁시다.

금 그리스도의 왕권 (시45:1-17) 찬 138장

왕의 결혼 예식을 통해 왕권을 예찬하는 본 편은 사람의 예찬으로 마치지 않고, 상징주의를 통해 참 왕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6) 병거에 오르는 왕의 위엄이 진리와 은유와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까닭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명 안에서 왕권을 누림은 그 안에 기름 부

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일2:27) 둘째, 주인이신 왕께 경배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11) 그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권합니다. 인간 왕은 단지 상징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 만을 경배하는 것이 시인의 확신입니다. 유일한 왕이신 주 예수만을 경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마 4:10) 셋째, 그는 영원히 만민의 찬양을 받으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17)

토 그리스도인의 판단(시81:1-8) 찬 485장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는 시인은 (1-2,8) 어떻게 바로 분별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악인의 판단은 자기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에 모두 악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의 모임에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광명 안에서만 나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작은 일에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같은 소자들을 다룰 때 억울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최종판단을 주께 위탁해야 합니다. 악인의 무지무각하고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 하나님이 일어나 판단해 달라고 겸손히 위탁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교회음악 이야기(52)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독일의 잉게 솔(Inge Aicher-Scholl 1917 - 1998)이 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동생들인 한스 솔(Hans Fritz Scholl, 1918-1943) 소피 솔(Sophia Magdalena Scholl, 1921-1943) 남매의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한스와 소피는 당시 독일의 뮌헨대학을 중심으로 조직된 '백장미단(White Rose)'의 중심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나치 정권의 비인간적인 불합리에 저항하며 그들의 허위와 만행을 대중에게 고발하기 위해 활동하던 비폭력 저항 그룹이었습니다. 한스와 소피는 결사적으로 투쟁을 하다 결국 게슈타포 나치 비밀국가경찰에 의해 며칠 지나지 않아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ark Hayes, 1953-)가 작곡한 "넉넉히 이기느니라(We are more than conqueror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롬 8장 37-39절을 텍스트로 삼아 세상의 그 어떤 조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어조를 음악으로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텍스트에 담긴 말씀은 사도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당시 모든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인 로마에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알고 로마에 들어가기 전 로마에 올 바른 복음의 진리를 교과서처럼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의 마지막 유언장처럼 심혈을 기울여 쓴 중심 내용이 이 안팎의 가사에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복음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념을 통해 한스, 소피 남매, 그리고 분회되는 그들이 외치는 정의와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없는 생명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곡가 마크 헤이스(Mark Hayes, 1953-)가 이 텍스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렬한 리듬, 오스티나토 기법(Ostinato-같은 형태의 리듬과 선율을 지속해가는 음악기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를 연신 반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의 깊이에 빠지게 되면 머리가 쭈뼛쭈뼛 서게 하며 가사가 주는 깊은 의미를 강렬하게 가슴에 담게합니다. 마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처럼 이 곡은 복음의 혁명가로 불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김기석 목사님께서 자신의 저서 "버릴수록"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의 안일한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는 길입니다."라고 쓴 말에 깊은 동의가 됩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우리 내면에 지속적으로 고백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재능이 비록 내게는 한 달란트가 되지 못하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 지라도 말입니다.

소피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유난히 음악을 좋아했던 소피는 당시 갈기갈기 찢어져 상처 난 내면세계를 경험할 때면 작은 교회에 들어가 오르간 연주를 하며 하나님의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녀가 삶의 질서와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사형선고를 받기 전 마지막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한 것을 대신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다만 우리처럼 행동에 옮기지 못할 뿐입니다. 태양은 아직도 빛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처형 직전 그녀의 부모가 면회를 와서 엄마 달달레나(Magdalena Scholl 1881-1953)와 나는 마지막 대화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하는 짧지만 강렬한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소망을 확인하게 하는 명언이었습니다. 엄마가 소피에게 이야기 합니다. 예수를 잊지마라(don't forget Sophia, Jesus) 그러자 소피가 응답합니다. "그래요 엄마. 엄마 또한 잊지마세요" (yes, mother, but you neither) 1943년 2월 22일 오후 5시, 그녀는 오빠 한스와 함께 백장미단을 결성했던 크리스토프 프로스트(Christoph Probst, 1919-1943)와 셋이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소피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똑같은 이슈로 나찌에 저항하며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해서 활동하다 붙잡혀 플로렌스부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했던 본 뢰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를 기억합니다. 그는 처형 직전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의와 항거하였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결정체인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넉넉히 이겼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안팎 가운데 마크 헤이스

iyoon@wm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 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79. 아버지의 4가지 영적 권위

하나님은 아버지를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가정의 머리(Headship)로, 가정 예배의 인도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자녀들에 대한 4가지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1. 축복권(祝福權)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정에서 자녀에게 날마다 행사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함께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함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는 축복의 말씀대로, 아버지학교에서는 캔디데이터 아버지들에게 매일 이른 아침과 잠자기 전 저녁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안전과 은혜와 평강을 빌며 축복기도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빌어주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2. 말씀권이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매일 하나님의 음성(말씀, 명령)을 듣고 받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나 대화를 통하여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4-9)는 쉼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는 쉼마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으로,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3. 훈육권(訓育權)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훈육권은 아버지가 가정에서 덕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기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덕과 윤리가 자녀에게 기준이 됩니다.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것은 죄이며, 직무유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교정과 성숙을 위하여 훈계와 징계를 해야 합니다. 징계받는 자녀에게는 결심이 생기고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징계되 혈기나 분노, 개인적 감정으로 해서 안됩니다.

성경에서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엢 6:4)고 하였고, “조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히 징계하느니라.”(잠 13:24)고 하였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얼렸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잠 22:15)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삼상 3:13)는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은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알고도,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두 아들과 며느리와 자신까지도 저주를 받아 죽으므로 가문이 멸하게 되었습니다.

4. 신앙전수권(傳授權)이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 주는 것이 아버지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전수야말로 아버지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이 순종의 조상이 되었고,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이어받은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되었듯이, 아버지는 미래의 자손에게 기억되고 본받을 만한 자랑스러워 할 만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과 눈물, 그리고 조상 적부터의 믿음의 삶을 생각하며,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 1:5)고 말씀은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계의 믿음의 유산을 상속, 전수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삼사 대까지 저주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숭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축복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출 20:3-6)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숭배하지 아니하므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여 천 대까지 축복받는 명문의 가문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베트남

▲ 종족명 파이 탄 종족

▲ 인구 약 2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99%, 복음화율 1%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프로파일 라오스 국경 근처 베트남 북부에 살며 쌀과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기른다. 정령을 숭배하는 이들의 고유 종교는 제물을 바치면 평화를 유지하고 행운을 얻지만 바치지 않으면 가족이나 농작물이 큰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경 녹음, 예수 영화, 자신의 말로 된 성경 말씀 등의 자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기도제목

- 1. 파이 탄족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줄 사역자들을 보내 주시도록
2. 성경 번역과 함께 복음 녹음, 예수 영화 더빙 등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3. 믿음공동체가 제자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3면에서 계속)

실문조사에 의하면 탑승자를 희생시켜서라도 보행자를 지켜야 한다고 답하지만, 그런 기능이 달린 차를 자신이 타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이 상상하는 가장 수준 높은 인공지능보다 훨씬 뛰어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

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배신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지요. 우리가 가진 지능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원칙 아래서 그분의 통제를 받으며 사용될 때 가장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와 지능을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사용하므로 죄와 죽음의 굴레를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은 신의 존재를 부정해 버렸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부딪치는 문제가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이것은 아직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지능을 부여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지능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는 큰 벽에 부딪히게 해 두셨고, 그 능력의 한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다 시금 하나님의 통제 아래로 들

어오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덕분에 인간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바로 그 인간 능력의 한계를 과학의 발전으로 점점 없애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더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는 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신이 점점 필요 없어지고, 더 나아가 신은 불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이며, 죽음 너머의 세계이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겪는 죄의 문제는 긍정심리학이나 철학 같은 학문이 일정 부분 죄책감을 해결해 주지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

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대안이 되었지요.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겪는 감사한 불행은 죽음이 시간의 흐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사고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년을 넘게 살 수 있는 시대임이 분명하지만, 오늘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시대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by 전재훈, TGC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scenic campus view, text in Korean and English,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and '2024년 봄학기 신, 편입생 모집'.

제 9회 신앙도서독후감 공모전 우수상

팀 켈러의 『탕부의 하나님』을 읽고

조진석 목사 (주의교회)



내가 팀 켈러 목사의 책을 처음 접한 것은 한국의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였다. 친구 목사님은 서울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도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던 차에 팀 켈러 목사의 목회 철학과 사역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을 읽고 연구하던 중에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에게도 팀 켈러 목사님을 소개하며 그분의 두꺼운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다. 팀 켈러 목사의 목회에 대한 소개와 신학적 배경과 사역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었는데, 이 후로 팀 켈러 목사의 설교와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에게 진실하면서 영혼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 방법이 매우 창의적이지만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것이 많은 목회자요, 철학자라고 생각했다.

이 책 『탕부의 하나님』 역시 나에게 새로운 통찰과 반성을 일으키는 거센 파도 같은 책이었다. 먼저 나는 팀 켈러 목사의 책 『탕부의 하나님』에서 두 아들에게 배분한 지면의 양을 주목했다. 거의

정확히 3분의 2를 큰 아들의 상태를 다루는데 활용한 것을 본다. 그것은 팀 켈러 목사가 주 독자층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고려하여 글을 쓰려고 하였는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 특정 계층의 사람들, 말하자면 그 당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사회의 큰 아들들이 예수님에게도 역시 구원해야 할 잃어 버린 자들로 여겨지셨다는 것을 더욱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변하지 않는다. 두 아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뿐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 아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나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가 지적하는 바 형들의 이런 모습의 이유는 "눈 멀어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절망적"이라는 데 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형들은 그저 의무감으로 아버지와 함께 한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지시를 따른다. 그 순종의 배경이 되는 것은 '두려움'이라

고 지적한다. 더 정확히는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이라 말한다. 즉 형들의 순종은 복음에 기초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위치를 사수하기 위한 복종에 가깝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복종은 자기 의로 쌓여져 결국 이 행위적 복종의 대가로 아버지의 것을 요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어느덧 아버지와 대등한 위치에서 아버지와 대결하는 구도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형들에게서 나타나는 병적 증상들을 읽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금은 고통스럽게, 아니 사실은 매우 아픈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여간해서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자극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늘 감정을 잘 조절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것이 통제되지 못할 때가 있고 느닷없이 그 벽을 허물고 나타날 때가 있어 가끔은 나 자신도 놀라곤 하는데, 팀 켈러 목사의 답답하지만 정확한 분석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형들은 자기 결정에 기초한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 밖에서 의의 성을 쌓으며 그것으로 존재 가치를 삼기 때문에 이를 견드리거나 무너뜨리면 불을 뿜어 낸다는 것이다. 세상을 '불행과 불화'에 빠트린

다고 팀 켈러 목사는 지적한다.

유독 자기 변호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나를 평가하고 나에게 대해서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 이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다 잡아도 이런 상황이 오면 내 얼굴이 이에 대한 불편을 감추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왜 그 지적이 틀렸는가를 설명하는데 목소리를 높인다. 자기 변호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탕자의 형들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크고 엄청난 진동이 나를 때렸다. "자기 변호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며 너무나 부끄러웠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나의 벌거벗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분이었다. 이 글을 혼자 읽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으니 말이다.

형들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차라리 동생처럼 한대 맞고 '아, 아프다.' 하고 끝나는 것이 나를 성 싶은데 형들은 더 참혹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저자는 그것을 드러내고, 나는 또 이것 역시 피할 수 없는 해당사항이기에 온 몸을 움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형들처럼 자기 의에 기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내면적 증상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 없음"을 말한다. 이에 대한 부수적인 증상으로는 기도생활이 건조하다는 것이 대표적이고, 아울러 기쁨으로 울려 드리는 찬송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그렇다. 나는 잘 알 수 있다. 내 신앙 생활이 엉망

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저자가 지적한 그런 경향이 나타남을 나는 많이 경험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성실히 감당했다고 자부하며 보낸 지난날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지만 그 가운데 기쁨의 찬송이 있었고 눈물 어린 감격의 기도 생활이 있었는가 묻는다면 나는 사실 할말이 없다. 그러나 그 세월을 누군가 폄하한다면 나는 또 열을 올리며 나를 변호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였노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었노라고! 그래서 나는 확실히 형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독후감을 쓰면서 지나치게 자조적인 투로 써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나는 그 핑계를 저자의 단어 선택에 돌리고 싶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기가막힌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신의 한 수라 생각된다. 바로 탕자의 "형"이 아니라 "형들"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탕자와 그 형"이라고 하면 그 스토리는 그저 단순한 교훈이요 성경 속 이야기로 끝이 나 버린다. 그런데 "탕자와 그의 형들"이라고 하면 스스로 그 비유 속 형 같은 많은 이들이 자기를 떠 올리게 된다. 그 "형들"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바라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이 시대의 나를 그 자리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팀 켈러 목사는 많은 지면을 "형들"을 다루는데 할애하면서 동생에 비해서 훨씬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는 대상으로,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로 묘사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곁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동생과 매 한가지의

길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신성 모독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책을 읽고 나니 확연히 이해가 갔다. 작은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요구 조건과 그 태도를 보면서 탕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큰 아들이 마음으로 아버지를 이미 멀리 떠나 아버지의 권위를 목살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잘 못된 길에서 있는 사람인 듯 정죄하는 모습을 또 다른 탕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두 아들을 그저 사랑으로 기다리고 보듬으려는, 어쩌면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조건적인 수용적 태도의 아버지도 분명 탕부라고 불릴 수 있을 듯 하다.

저자는 말한다. "아들의 자격과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방적 마음으로 아들의 가난과 누더기를 덮는다."라고. 나는 이 책을 읽으며 형들의 무리 가운데 내가 서 있고, 스스로를 비유속 탕자의 형과 다를 바가 없음을 자책하는 마음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또 다른 탕자로 머무는 것일 뿐이다. 수십 년 목회를 하며, 그리고 인생의 중반기를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다. 목회도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해 왔고, 가정도 주님 때문에 잘 지켜졌으며, 내 인생도 주님으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의를 변호하기에 열 올릴 일은 없을 것이다. 저자는 형이 형의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고 했으니 그 위험 지대는 벗어 나도록 하자.

베드로 진서 16

영성을 위하여 1

한국의 옛 노래에 해는 저서 어두운 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하는 가사처럼 은퇴를 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노래처럼 들린다. 특히 내 친구 어디가고 나 홀로 남아서 하듯이 이미 같은

시대를 살고 함께 정을 나누는 분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알았던 분들도 한 돌씩 떠났다는 이야기를 읽을 때 더 더욱 그러하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외롭다 심심하다 에서 시작하여 누가 죽었다 어느 친구가 암에 걸렸다 하는 소식으로 일과를 지내는 것 같다. 그러나 은퇴 자들에게는 죽음이 옆에 있고

혹시나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혹시 의사가 병을 선고한다면 내 병은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은퇴자들의 심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루는 상담사로 일하는 큰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확실히 노년에는 그런 외로움과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은퇴자들에게 우울증이 많고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병을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빠도 자원 봉사자 같은 것 해보실래요? 하고 물었다. 그렇잖으면 여행을 하시든지 글을 쓰든지 뭐라도 하라고 권유했다. 고마운 말을 들으면서 아빠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아빠는 예전 목회할 때의 그 영적인 템포를 늦추지 않고 지금도 똑같이 생활하니 염려마시라 하고 안심시켰다.

revpeterk@hotmail.com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Exclusive Offer Available at Flushing, Fort Lee, Jericho, and Palisades Park Branches!

11 Month Certificate of Deposit

5.25% APY*

The Bank of Princeton

thebankofprinceton.com | 609.921.1700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Promotion available at Flushing, Fort Lee, Jericho, and Palisades Park branches ONLY. Offer valid on an 11 Month CD with a minimum opening deposit of \$500 per tax ID. Once the initial 11 Month CD time has elapsed, the CD will roll over for an additional 11 Month CD at the prevailing interest rate. This will continue until customer notifies the Bank within ten (10) days of maturity date. Promotion begins at 9:00AM EST on January 8, 2024;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Early withdrawal penalty may apply; fees may reduce earning. Other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저희 프린스턴 은행은 한인 고객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자 및 예금 상품 안내를 포함한 궁금하신 사항은 www.thebankofprinceton.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문익은 플러싱-체리코-포트리-팔리세이즈파크 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